

등기	소송(송장)	신청	기타
소유권보존이권 전세권 설정	민사	지급명령	공탁
근저당권 설정	형사	가압류	고증
지상권 설정	가사	가처분	경매
법인설립·변경	행정	강제집행	호적
주식회사설립·변경등			



## 도심 군부대 이전 앞당긴다

### 군 시설물 철거 · 도로 조기개설 위한 협약서 체결

다음달 초순까지 군 건물 8개동 철거  
올해 내 군부대 관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군부대 이전 협의서 체결로 도심 개발이 앞당겨지게 됐다.

속초시에 따르면 현재 청학동 군부대 내에 있는 시설물의 철거와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을 위한 군부대 이전 세부 협약서 체결이 지난 9일 오후 해당 군부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열렸다.

시는 지난해 10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해당 군부대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군부대 담장 바

로 앞에서 공사가 중단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군부대 시설물의 조기 철거를 위해 이날 세부 협약서를 추가로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서 체결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군부대 시설물의 조기 철거의 길이 열림에 따라,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 다음달 초순까지 현재 청학동 군부대 내에 있는 아파트와 부대장 관사, 위병소 등 8개동의 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또 군부대 시설물 철거작업이 마무리 되면 8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김안경원~금호유료주차장까지 178m 구간의 도시계획

도로(폭 12m) 개설공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군부대 내 아파트 등 숙소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소속 부대원들이 거주할 시내 미분양 아파트 50세대의 매입작업을 지난달 마무리 했다.

시와 해당 군부대는 지난해 10월, 청학동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물 중 이전이 어려운 일부 시설물은 최대한 집중화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존치시키고, 시가 관련 시설의 현대화 및 보강공사를 통해 군부대 측에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전되는 대체시설은 군부대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의 가격 범위 내에서 시에서 제공하고, 현재 부대 내에 있는 주거용 시설물은 철거하는 대신 시내 아파트를 구입해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당초 협약한대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이 추진될 경우, 속초시가 기부 조건을 충족시킨 이후인 2011년 12월경에나 군부대 토지 1만 3,000㎡를 양여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이번에 세부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서 체결로 군부대 시설물 철거와 도로개설작업이 앞당겨질 수 있어, 도심개발이 가속화 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 진녹색 수복탑 모자상 시민들 '생똥맛네'

강풍에 부서져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다시 복원된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위 모자상(母子像) 색깔이 지난주 짙은 녹색으로 바뀌자 시민들이 '생똥' 맛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83년 복원된 청동 모자상은 지난주 금색 페인트가 칠해진데 이어, 이번에는 짙은 녹색으로 옷을 갈아 입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속초시는 "수복탑 모자상의 녹과 얼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즉시 녹색 페인트를 제거해 청동상 원형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수복탑은 지난 1954년 3월 건립됐으며, 1983년 4월 27일 새벽 강풍으로 모자상이 부서져 시민들의 성금으로 그해 11월 다시 복원됐다.

고명진 기자

경축 JCI 속초청년회의소 창립 40주년

쌀은 생명이다. 우리 쌀을 지킵시다. **고성오대미**

▶음식점 전용쌀 판매 ▶주문즉시 가공판매

주문배달문의 ☎033)633-0040~1

※주문즉시 단 한포라도 가정까지 신속히 배달해 드립니다.

고성농협 속초직매장

## 설악신문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설악권 유일의 지역주민신문으로  
주민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하며 성장해온  
설악신문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생활 환경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작지만 건강한 지역신문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경찰서 관사 완공

고성군, 구관사 주차장으로

고성경찰서 신축 관사가 완공됐다. 해당 관사는 간성을 신안리 286번지 일원 1,765㎡에 총 8억5,000만원을 들여 1동 3층 규모로, 약 20평형 1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다음달에 간성을 하리에 위치한 경찰서 구 관사 건물과 부지, 오호리와 천진리의 경찰청 부지, 현내면 제진리에 있는 재경부 부지(경찰청이 관리하원 받아 교환) 등 경찰청 관리대상 토지 총 10필지 5만㎡와 신축 관사의 교환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부지교환이 최종 마무리되면 기존 경찰서 관사와 인근 고성군읍식업지부 사무실을 모두 철거해 1,300㎡(약 4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간성시내의 주차난을 해결할 계획이다.

고성경찰서는 다가족 직원이나 외지에서 온 직원 등 평직원들을 관사에 입주시킬 방침이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 케이블카 22일부터 운휴

25일까지, 설악산 안전점검

설악산소공원과 권금성을 잇는 케이블카가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운휴에 들어간다. 설악케이블카(주)는 이번 운휴기간 동안 케이블카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기상이변이나 공사일정에 따라 운휴기간이 지연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우철 기자

# 학사평 순두부마을 전신주도 철거

##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마무리 단계

### 국립공원 내 송전탑 철거 계획

속초 도심구간의 전신주가 사라지는 데 이어 속초의 관문인 노화동 콩꽃마을 관통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도 이번 주중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특히 콩꽃마을의 전신주 철거작업이 완료될 경우, 한전측이 내년까지 설악산 국립공원지역에 설치된 송전탑도 철거할 계획이어서 국립공원의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속초시에 따르면 설악산국립공원 내 경관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한화콘도 사거리에서 시경계 인근 지점인 1.8km 구간에 공사중인 학사평 순두부마을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대부분의 토목 및 케이블 설치 등의 기반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이다.

시는 이달까지 공사구간 내 배관 매설

등의 토목공사와 전신주 철거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학사평 순두부마을 지중화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송전선로는 한전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배전선로는 속초시가 3분의 1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시작됐으며, 지난달 하순 배전선로 케이블 인입작업이 마무리됐다.

이어 이달 초순에는 도로포장 및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토목공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한전측이 배전선로 시운전에 이어 이번주까지 콩꽃마을 관통 도로변에 설치된 108본의 전신주를 철거해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내년에는 송전선로 케이블 인입작업을 한 후, 현재 설악산국립공원일

대에 설치된 24기의 송전탑도 철거할 계획이다.

또 시는 한전측이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사업구간을 당초 '한화프라자 사거리~시경계 지점'에서 '한화프라자 사거리~속초시해오미작업장'으로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 당초대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현재 한전측과 이 부분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콩꽃마을의 전신주 철거작업이 마무리 되고 송전탑마저 철거되면 속초 관문인 마을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탁 트인 환경에서 설악의 비경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설악로데오거리 공사구간에서 진행 중인 속초 도심 구간의 전신주 철거작업도 이번주에 대부분 마무리 돼 산뜻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게 된다.

고명진 기자 mjgo90512hanmail.net

## 오색로프웨이추진단 '미래전략과' 로

양양군 정식기구화...7월 조직개편 · 인사발령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로프웨이추진단의 정식기구화와 윤여준 기획감사실장의 명예퇴직 등에 따른 기구개편 및 인사를 7월1일자로 단행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7월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거리제한을 완화하는(2km→5km) 내용으로 개정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는 등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한시적기구로 운영되던 오색로프웨이추진단을 미래전략과로 정식기구화 하는 등 기구개편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양양군의 조직기구는 1실 10과 60담당에서 1실 11과 61담당으로 변경된다.

양양군은 부동산평가담당과 경영수익담당, 문화복지회관담당 등 3개담당을 폐지하고, 미래전략과에 기존의 오색로프웨이담당을 비롯해 투자유치담당, 개발지원담당, 녹색성장담당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투자유치담당은 투자유치 및 골프장과 로프웨이 주변개발사업, 개발지원담당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경영수익업무 전반을, 녹색성장담당은 해양심층수와 연어사업 등 신성장동력사업과 저탄소녹색성장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생활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 등 2곳에서 중복 추진되던 다문화가정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고, 문화복지회관담당 업무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관리담당에 전담하도록 하는 등 일부 업무도 조정한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 3일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양양군은 윤여준 기획감사실장이 30일자로 명예퇴임함에 따라 인사발령도 단행할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Sokcho Post office  
속초우체국

고객이 주인이 되는 우체국

## 설악신문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속초우체국장 최명철

정보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저희 속초우체국은 인터넷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체국장과의 대화방(사이버민원실)을 통해 많이 제출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속초우체국 130여 종사원 모두는 우체국서비스현장을 통해 공표한 바와 같이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우편 금융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고객만족 서비스제공을 적극 실천해 나갈것은 물론, 21세기를 선도하는 지식정보화의 역군으로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주민에게 친절하고 사랑받는 우체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온 설악신문의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 우/편/서/비/스
- 금/용/서/비/스

속 초 우 체 국 tel. 633-4488 / fax.633-3191

# 향로봉 고원훈련장 일단 합격점

## 마라톤 선수 3주간 훈련 후 타당성 중간보고

### 강원대 체육과학연구소 “지구력 향상”

고성군의 향로봉 정상 일대가 고원전지훈련장으로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고성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강원대와 강원도청, 한국전력 마라톤 팀이 지난달 7일부터 3주간 고성군 향로봉 정상에서 훈련하며 고지대 훈련장 타당성 조사 벌인 것과 관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김세환 강원대교수는 “향로봉 정상 일대에 해발 1,000~1,300m의 완만한 고지대가 12km가량 펼쳐져 있는데다, 기온과 기압·상대습도가 낮아 고원전지훈련지로서 국내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달 7일부터 3주간 강원도청과 한국전력 소속 남녀 마라톤 선수 11명을 대상으로 고지대 훈련을 벌이며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RBC(적혈구) 수치가 훈련 이전보다 7.8%가량 상승했다”고 말했다. 적혈구 수치가 높으면 산소 흡입량이 많아지면

서 피로 회복이 빨라져 지구력을 높일 수 있다.

또 훈련 강도가 높아지면 증가하는 선수들의 CRP(혈관 염증지표)와 CPR(근손상 및 근 질환의 지표) 수치에 변화가 없어, 평지와 동일한 훈련강도로 측정됐음을 밝혔다.

최선근 강원도청 감독은 “스피드와 인더빌 훈련을 할 수 있는 400m 트랙만 갖추면 마라톤 훈련 코스로는 최적이다”

며 “국내 최고의 훈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합숙환경과 보조경기장 마련 등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강원대 체육과학연구소는 앞으로 훈련에 참가한 마라톤 선수를 대상으로 고지훈련경험과 신체적 스트레스, 향로봉 코스 만족도에 대한 기초

설문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8월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강원대 체육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진부령 알프스스키장 옆 향로봉 정상은 해발 1300m로 고지 훈련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1800m 고지보다는 낮다.

하지만 다소 낮은 지역에서도 고원 환경의 분위기, 온도, 습도, 기압 등 변수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향로봉은 한국형 고지 훈련지로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고성군이 지난 9일 향로봉 고원전지훈련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회를 갖고 있다.



### 현충일 추념식 거행

#### 속초시, 충혼탑 공원화

지난 6일 제54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과 참배식이 열렸다.

속초시는 이날 오전 대포동 충혼탑에서 채용생 시장 등 공무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회원, 각급 기관단체장,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

추념식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채용생 시장의 헌화 및 분향, 헌시 낭독, 추념사 등으로 진행됐다.

같은 날 속초해양경찰서는 장사동 해양경찰 충혼탑에서 김수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창삼 속초해양경찰서장과 실과장, 유관 기관·단체장,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혼탑 참배를 올렸다. 해양경찰충혼탑에는 동·서·남해 바다에서 순직한 해양경찰관 150위(전사자 26위, 순직자 124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한편, 속초시가 국·도·시비 3억원을 들여 속초시충혼탑 공원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충혼탑 보수와 조경목 식재, 바닥 보수, 담장 및 보호펜스 설치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충일 행사 등으로 일정이 조금 늦춰져 7월 중순경이 돼야 모든 사업이 마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시충혼탑은 속초 출신 전몰군경을 추모하기 위해 1964년 동명동 등대 서쪽 방향 산등성이에 건립됐다가, 1969년 5월 영랑호 남동쪽 공원으로 옮겨졌고, 1987년 12월 15일 현재 부지에 안착했다. 탑의 좌우에는 국군의 활약상을 조각한 청동상이, 뒷면에는 비문과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이우철 기자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80명 신청

### 속초시 공개 모집 마감...이달말까지 60명 선정

속초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공개모집에 모두 80명이 신청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실시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공개모집 결과 80명이 접수했다.

이번 모집 결과 33명을 모집하는 공개모집에 47명이 신청했고, 19명을 모집하

는 기관·단체 등 추천 부문에 25명이 접수했다.

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위원 8명을 포함하면 이번 공개모집에 모두 8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 분과별로는 1지망을 기준으로 일반행정 18명, 문화체육복지 30명, 환경산업경제 12명, 지역개발에 20명이 접수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이어 50대 18명, 30대 9명, 20대와 60대 각각 3명, 70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까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속초시 재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6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시민위원들은 다음달부터 속초시의 세입·세출·예산편성 등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고명진 기자 mjg0051@hanmail.net

# 제44회 설악문화제 사업 공모

설악문화제위원회는 “설악, 바다와 만나 실향을 넘다”라는 주제 아래 제44회 설악문화제를 빛내줄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산악, 해양, 실향문화가 어우러진 속초 문화의 우수성이 설악문화제를 통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44회 설악문화제
- 일 시 : 2009년 10월 중
- 슬로건 : 설악, 바다와 만나 실향을 넘다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설악산일원, 속초해수욕장
- 주 최 : 속초시, 설악문화제위원회
- 주 관 : 설악문화제위원회, 각급단체

**지원 신청 자격** 설악문화제 행사에 관심 있는 단체 및 개인

**공모 분야**

- 분 야 : 설악산악, 해양민속, 실향민속제, 기타 부대행사
- 장 르 : 공연, 전시, 체험, 기타 ※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는 행사 특전 부여

**지원 제외 사업** 본 위원회 주제와 부적합한 사업

**신청 접수 및 결과 발표**

- 기 간 : 2009. 6. 12 ~ 26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 관련 사진 첨부
- 접수처
  - 방문 : 속초문화회관 내 설악문화제위원회
  - 우편 : (217-0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속초문화회관 내 설악문화제위원회
  - ※ 우편 접수 시 제44회 설악문화제 사업신청서 재중 표기
  - E-MAIL : cts9911@paran.com
- 결과발표 : 2009년 7월 중 (설악문화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문 의 : 사무국장 최택수
- 사무실 : 033-635-8827 / fax 033-638-8827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는 설악문화제 홈페이지(www.seorakfestival.com) 다운로드 또는 사무국 방문

**설악문화제위원회**

## 공병 교육장 조성 간성 교동리 일대에

육군 제8군단이 고성군 간성을 교동리에 공병 주특기 교육장을 조성한다.

고성군은 “8군단이 8,000만원을 들여 고성군 간성을 교동리 411 일대 2만240㎡ 부지(8군단 구 전차대대 자리)에 공병 주특기 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4일 건축협회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군부대는 해당 교육장에 강의장과 통제대, 화장실, 창고 등 건물 5동을 신축해 1개 중대 단위로 공병 주특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장 조성이 완료되면 136공병대대와 22·23사단의 공병대대 8개 중대가 해당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군부대는 공병 주특기 교육의 특성상 지뢰와 폭파·축성·급수장 운용 등의 훈련이 이뤄지지만, 주민 피해를 없애기 위해 지뢰와 폭파 교육은 연막제와 연습용 TNT 등을 활용한 교보재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수장 교육은 해당 교육장 인근이 상수원보호구역임을 감안해 거진항 인근에서 해수를 사용해 실시하고, 하천을 이용한 모든 교육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활용해 수시로 수거 처리하고, 숙영과 취사는 교육장내에서 벗어나 인근 공병부대를 이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는 고성군, 주민대표와 ‘공병 주특기 교육장 조성’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홍수 기자 ellan92@goseong.org

##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양양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유지 1만627필지 2,123만 5,741㎡와 건물 192동이다. 군은 지적전산자료 등 토지관련 각종 공부와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대조해 공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필지별 관리상태를 현지 확인, 대부재산의 이용실태와 적정성 및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 양양 수산항서 시원한 물살 가르다

## 해양경찰청배 전국 요트대회 18~22일까지 개최

“동해안의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양양에서 낭만을 만끽하세요.”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가 설악권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양양 손양면 수산항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해양경찰청과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양양군과 속초해양경찰서, 강원도요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픈미스트 등 15개 종목에 남·녀, 초·중·고·대학·일반부로 나눠 요트 210척과 23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설악권 최초로 전국 요트대회를 개최하는 양양군은 이번 요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13일까지 물양장 공사과 47척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완공하고, 클럽하우스, 광장 포장 등 주변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요트(크루저)체험행사, 소방 방재합 물 대포 시연, 해경악대

퍼레이드, 해군함정 전시 및 축포 등 다양한 축하행사도 열린다.

특히 한번에 100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관람정을 무료로 운영해 경기장인 수산항 요트마리나를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한 동해바다에서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를 생동감 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양양군은 전국 규모의 요트대회 유치에 따라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전국적인 해양레포츠 기반을 구축하게 됐으며, 앞으로 요트인구 저변확대와 인재양성, 관광객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김순교 강원도요트협회장은 “이번 대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가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양양군에서 5일간 열린다.

회를 통해 양양군이 동해안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부각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해양스포츠 산업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요트클럽하우스 개관식은 대회 기간 중인 19일 오전 11시 현지에서 열린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설악문화제 새로운 변화 모색

### 기획실행분과 구성, 방향·프로그램 개발

설악문화제위원회(위원장 조수웅)가 15명의 민간 위원들로 기획실행분과를 구성하고, 설악문화제의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기획실행분과(위원장 강원도립대 교수)는 지난 3월 제43회 설악문화제 결산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행사의 기획, 심의, 선정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기획실행분과의 결정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획실행분과는 지난달 20일 첫 회의

를 가진 데 이어, 지난 5일 2차 회의에서 설악문화제의 방향과 슬로건에 대해 협의했으며, 지난 11일 위원들이 제시한 7개의 슬로건 가운데 ‘설악, 바다와 만나 실향을 넘다’를 제44회 설악문화제의 슬로건으로 확정지었다.

설악문화제 최택수 사업팀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메일 투표를 통해 슬로건을 확정했다”며 “기획실행분과는 설악문화제의 기본 방향과 슬로건을 중심으로 사업계

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선정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어 “기획실행분과는 축제의 목적이나 성격, 추진방향에 어긋나는 행사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설악문화제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행사는 집중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실행분과는 빠른 시일 내 사업 공모 및 포스터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설악문화제의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확정지를 예정이다.

최 팀장은 “올해 새로운 시도가 설악문화제 고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철 기자

전국대회 우승을 향한 힘찬 도약을 -

# 2009 영랑초등학교 야구부 후원의 밤

모교의 위상을 드높인 야구부 및 관악부 후배들의 체육,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영랑초등학교 야구부 후원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속초 관내는 물론 전국에 모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회장 문광철



**일시** 2009년 6월 20일(토요일) 17:00~22:00

**장소** 영랑초등학교 체육관(급식소)

**주최** 영랑초등학교 총동창회

**후원** 영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어머니회, 야구부학부모회, 관악부학부모회, 속초시청동창회, 속초시체육회, 속초시아구협회, 설악고등학교총동창회, 설악중학교총동창회

회장(문광철) :011-7347-5678 / 사무총장(최동진):017-374-5234 / 총무부장(차호석) 010-9903-3143

# “척산온천관광지 개발 승인 주민 기망”

## 척산 주민들 “물이용 협의체 구성 무시 일방 추진”

### 속초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일 임박해 협의·승인 병행”

속초시가 원주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물이용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강원도로부터 척산온천관광지 개발 승인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척산마을 주민들은 척산온천개발과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조건에 따라 물이용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시가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척산온천관광지 개발 승인을 신청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강원도로부터 척산온천관광지 개발을 승인받고도 보름 넘게 이같은 사실을 숨겨왔으며 더욱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도지사로부터 척산온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조건부로 승인받은 뒤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 건축허가, 관광사업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척산마을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3월 척산온천 개발과 관련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승인하면서 조건부

로 제시한 3가지 조건을 속초시가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척산온천관광지 개발이 승인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지하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사업 시행 전 속초시·지역주민·사업자·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속초 척산마을 물이용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 △청초호 수질관리목표(2등급)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등을 조건부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승인했다.

척산마을 주민들은 지난 11일 오전 마을회관에서 열린 속초시와 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원주지방환경청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척산온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병훈 척산온천개발비상대책위원장은 “앞에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뒤에서는 강원도로부터 개발승인을 받아내는

속초시의 행태를 단순히 업무상 실수로 보기는 힘들다”며 “속초시 행정의 신뢰감마저 무너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위원장은 “시가 당초 알려진 날짜(지난달 18일) 이전에 개발 승인을 신청해 놓고, 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된 지난달 22일까지 물이용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를 받아내기 위해 지금까지 주민들을 기망해 가며 협의를 진행해 온 것 같다”며 “하자 투성의 척산온천관광지 개발이 승인된 것에 대해 속초시와 강원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물이용 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날짜가 임박해 협의와 승인절차를 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속초시는 간담회 이후 가진 개별면담에서 “만약 올해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 내년 1월(12일)까지 기다려 신청하게 돼 상반기 신청기한인 사업주인이 10개월 정도 늦어져 부득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척산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속초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타협없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에 따라 용역작업 선 이행 등의 원칙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정해 척산온천관광지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척산온천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주민간담회가 지난 11일 척산마을회관에서 열려 주민들과 강원도와 속초시 관계자들이 설전을 벌였다.

실악신문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 속초양양교육의 중점 과제

### 교육지표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



희망·보람·감동의 속초양양교육



### 기본방향

- ▲바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기본교육 충실
-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성 교육 내실
-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구현
-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행정 전개

### 중점추진과제

- 인성교육**
  -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실천
  - 사랑이 넘치는 학교문화 조성
- 기초기본교육**
  - 눈높이 교육과정을 통한 기본학력 확보
  - 교실친화적 교사 지원 통한 수업 개선
- 창의성 교육**
  - 소질과 능력 계발을 위한 수월성교육 강화
  - 유비쿼터스 사회 대비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
- 교육복지**
  - 참살이를 위한 평생·체육교육
  - 교육 기회균등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
- 지원행정**
  - 사용자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교육서비스 행정 구현

### 특색교육

- ▲행복오름 다문화교육
- ▲책 향기 가득한 학교·가정 만들기

### 자율·창의·변화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교육장 외 교육가족 일동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http://www.kwsyed.go.kr>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

# 도루묵치어 무상 방류...무슨 일?

## 우주수산 “종묘방류사업 결정 늦어져 치어 폐사”

### 고 성 군 “자체 노력 없이 지자체 탓 전가 문제”

민간업체로는 국내 처음으로 대구와 도루묵 치어생산에 성공해 화제가 됐던 고성 동호리 이상철 우주수산 대표(본보 3월3일자 보도)가 지난 5일 오후 2시경 거진항 앞 바다에 도루묵 치어(크기 3cm) 25만 마리를 무상 방류했다.

하지만 그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키운 도루묵 치어를 무상방류한데에는 이유가 있다.

올해 고성군의 수산종묘방류 사업 기본계획 결정이 늦어지면서 방류시기를 놓친 대구와 똑치, 도루묵 등의 집단폐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상철 대표는 “대구치어 50만 마리가 지난 4월 중순경 전량폐사한데 이어, 5월 말경에 똑치 치어 30만 마리 전량과 도루묵 치어 90만 마리 중 40만 마리 등이 폐사

해 2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남은 도루묵 50만 마리 중 25만 마리는 지난 3일 뒤늦게 고성군과의 수의계약으로 방류됐고, 나머지 25만 마리는 살리기 위해 이날 무상 방류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구와 도루묵 등 새로운 어종의 종묘 생산은 기존의 넙치나 강도다리 에 비해 2~3배의 시간과 경비가 들어간 다”며 “적절한 시기에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어종개발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로운 어종으로 지역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도루묵과 대구 치어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올해 수산종묘방류 사업의 기본계획 결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

이지만, 우주수산이 타 시군에 수산종묘 판매 노력도 없이 모든 것을 지자체 탓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수산종묘 구입에 대한 공개입찰 방침을 세우고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의 수의계약 요구로 지연된데다, 그 동안 수산종묘 구입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니 타 지역 종묘생산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대구와 도루묵을 시험방류 종묘로 지정해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방류 사업을 펼치려고 했으나, 지난 4월 대구 치어를 조사한 결과 상태가 좋지 않아, 이상철 대표도 이를 인

정해 방류를 취소했고, 도루묵 치어 25만 마리만 수의계약으로 방류했다”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대구 수정란을 방류하는 경남 거제시에도 대구 치어 생산소식을 공문으로 전하고 치어를 구입해 방류사업을 해달라고 홍보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최근 3년간 우주수산 등 관내 2개업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산종묘를 구입한 비용이 전체 사업비 15억 3,200만원의 90% 수준인 13억 7,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우주수산 대표인 이상철씨가 지난 5일 거진항에서 도루묵 치어 25만 마리를 무상 방류하기 위해 도루묵 치어를 몰차에서 배로 옮겨놓고 있다.

## “동서고속화철도, 정부 추진의지 확인”

### 속초시 “지역발전위 방문...초광역권 개발계획 포함 건의”

서울~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조기 착공의 전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 5일 채용생 시장과 최돈일 범시민 동서고속화철도유치위원장이 지역발전위원회(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강한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채용생 시장과 최돈일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3층 지역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최상철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국을 M자 형태로 개발하는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채 시장은 “동서고속화철도가 국토 균형발전 촉진과 초광역권 개발계획의 완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일본 등 환동해권 국가와의 에너지·물류·관광 등 전분야에 걸친 교류를 통해 경제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이 “동서고속화철도는 국가 미래 발전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서울~춘천간 복선전철이 내년 준공되는 등 이미 모든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된 만큼,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는 6~7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초광역권 개발계획’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동해안은 ‘에너지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동서고속화철도가 초광역권개발계획에 포함되면 고속화철도 개설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조기 착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 속초시 하계 부업 대학생 30일까지 모집

속초시는 오는 30일까지 하계 부업 대학생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지역 출신 대학생으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세대주)가 속초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자녀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록 학생(본인), 2009 동계부업대학생 속초발전 창안 아이디어 입상자 등은 우선 선발한다.

다만 지난해 동계 부업활동 참가 대학생과 1가정 2자녀 이상 신청, 올해 8월 졸업예정자, 휴학생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기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하계 부업 대학생 선발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인 공개추첨 원칙에 따라 모두 1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고명진 기자

##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랑의 장학회

# (재) 속초검찰한마음 장학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장차 국가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시킨다는 목적으로 1992년 10월 자본금 5,200만 원 을 모금하여 법무부 산하 전국 최초의 장학재단으로 설립된 저희 장학회는 그동안 법무부 산하단체 위원 등 재단관계자들과 뜻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성어린 장학기금 출연으로 지금까지 7억3천5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그 이자소득으로 영북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9명의 학생들에게 총 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금증자를 통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열어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시 : 2009년 6월 25일(목) 5시 속초근로복지회관 강당



이사장 이규철

### 2009학년도 학교별 장학생 선발 현황

- 중학교 : 속초-설악중학교 4명, 설악여자중학교 4명, 속초중학교 5명, 속초여자중학교 5명, 고성-거진중학교 2명, 고성중학교 2명, 동광중학교 2명, 대진중학교 1명 양양-양양중학교 2명, 양양여자중학교 2명, 현남중학교 1명, 현북중학교 1명, 강현중학교 1명
  - 고등학교 : 속초고등학교 5명, 설악고등학교 7명, 속초여자고등학교 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2명, 거진종합고등학교 3명, 고성고등학교 3명, 동광농공고등학교 5명, 대진고등학교 1명, 양양고등학교 3명, 양양여자고등학교 3명
- 총 중학생(32명) : 12,800,000원, 고교생(37명) : 22,200,000원 장학금 지급액 : 35,000,000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재단법인 속초검찰 한마음장학회

○ 후원계좌 : 동명새마을금고 : 4249-09-003445-5  
○ 문의 : 033)631-0050

# “등대해수욕장, 돌아온 백사장 반갑네”

해안침식 영랑동 해안가 바닷모래 쌓여...헤드랜드·잠제 설치 효과

해수욕장 개장을 20여일 앞두고 속초시 영랑동 주민들이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년째 자취를 감췄던 바닷모래가 영랑동 해안을 뒤덮으면서 드넓은 백사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영랑동 2통 해안 일대는 장사항 방파제 보강공사 이후 수년째 계속된 해안침식으로 바닷모래가 대부분 사라져 지난해까지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을 빚어왔지만, 올해는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으로 헤드랜드가 조성된 해안을 중심으로 백사장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찾은 영랑동 등대해수욕장은 헤드랜드가 조성된 해안 일대에 드넓은 백사장이 한 눈에 들어왔다.

이날 해수욕장 개장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김일석 영랑새마을금고 이사장도 “백사장이 이렇게 고마울 줄은 정

말 몰랐다”며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등대해수욕장은 해안 침식으로 헤드랜드가 조성된 해안을 제외하고는 350여m 구간의 백사장이 자취를 감춘 데다 삼밭이가 드러나 해안경관을 해쳐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헤드랜드 조성 해안을 중심으로 드넓은 백사장이 조성됐고, 지난해 여름에는 바닷물에 잠겼던 해안(헤드랜드에서 영금정 방면으로 60~70m 구간)에도 폭 20~30m 넓이의 백사장이 펼쳐졌다.

주민들은 해안가에 과도 위력을 약화시



지난 10일 찾은 등대해수욕장은 지난해와 달리 백사장이 형성되고 있다.

키고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잠제 1기(1구간·길이 100m, 폭 40m) 설치공사가 해안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믿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잠제2기(길이 130m, 폭 40m) 조성공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수면에서 50cm 바다 밑에 설치되는 잠제 조성공사 특성상 해저 밑 모래를 준설할 수 밖에 없어, 이 모래가 잠제로 인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해안으로 밀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삼밭이로 메워져 있는 등대 주변 영금정 돌섬 바위 일대 해안도 잠제 1구간 해안처럼 바다모래로 뒤덮인 백사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등대해수욕장이 수년 만에 옛날의 모습을 되찾아 가자 올해는 백사장에 방갈로를 설치해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여름 추억을 선사하기로 하는 등 개장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는 영랑동 2통 해안 일대의 해안침식을 막고 백사장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헤드랜드 조성 이후 오는 2011년까지 104억원을 들여 잠제 3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일석 영랑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올해는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한 간이화장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지난 2004년 처음 개방된 영랑등대해수욕장은 올해 7월 개장된다. **고명진 기자**

## “6·10 항쟁 계승 민주주의 후퇴 막자”

시민·노동단체·정당, 속초서 22주년 기념문화제 열어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문화제가 지난 10일 오후 7시 1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속초 엑스포 분수대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6·10민주항쟁 기념 문화제는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성폭력상담소,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회, 진보사회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노동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3개 정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속초경실련 김준섭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 문화제는 1987년 6·10민주항쟁 영상 상영으로 시작돼 깃마당 풍

물공연과 시낭송, 김민희 신천무용단장의 살풀이, 동해지역 노래패 공연 등이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속초경실련 안종원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요즘 상황을 보면, 시간이 거꾸로 흘러 마치 3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역주행을 시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한다. 그것이 6·10항쟁의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민주당 속초고성양양당원협의회장(시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 6월 항

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낸 분들께 죄송하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들이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다.

기념식 중간 중간에 김동일 전 민주노동당양양군당원협의회장과 엄경선 설악진보사회연구

소장, 최문경 인제참여시민연대 운영위원, 김경석 속초고성양양진보신당 추진위원장 등이 자유발언을 했다.

정양언 진보사회시민연대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6·10항쟁의 의미는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인데, 지역에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문화제가 엑스포 분수대 광장에서 열렸다.

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기독교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지다”며 “지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때 6·10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환 기자**

## 편의점 현금지급기 통째 턴 30대 검거

방범용 CCTV·휴대전화 기지국 추적 붙잡아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양양지역 편의점에서 잇따라 현금지급기를 훔쳐간 3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속초경찰서는 지난 11일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지급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정모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새벽 4시경 양양읍 조산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A씨(49, 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800여만원이 들어있는 현금지급기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혐의이다.

정씨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오전 2시46분경 양양군 강현면의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B모씨(24, 여)를 위협

한 후 500여만원이 들어있는 현금지급기를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 편의점 주변 및 국도 등의 방범용 CCTV와 휴대전화 기지국 추적 등을 통해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범행에 앞서 범행 장소는 물론 진·출입로 일대 CCTV 설치 여부를 살펴본 후,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kg의 무게가 나가는 현금지급기를 편의점에서 끌고 나와 자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얹힌 다음 밀어서 싣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설악동 주차장과 고성지역 산간 도로에서 정씨가 범행 후 버린 현금지급기를 찾아냈으나, 현금의 사용처는 아직 미지수다.

경찰은 정씨가 카지노를 자주 출입한 점으로 미뤄 도박으로 탕진한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고명진 기자**

### “전체 포사격장 환경영향평가”

군부대, 학야리 포사격장 관련

주민반발을 사고 있는 고성 학야리 대전차포사격장 인근 부지 추가매입 추진과 관련(본보 6월 2일자 보도), 울곡부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곡부대는 지난 10일 부대내에서 이양구 부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과 고성

경찰서 등 관계자들과 ‘포사격장 갈등관리 평가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울곡부대는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군부대 사업은 있을 수도 없다”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했다.

울곡부대는 “당초에 밝혔듯이 해당사업은 환경오염방지과 안전지대 확보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 훈련장 확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후, ‘전차포사격장 확장사업’ 명칭을 ‘전차포사격장 안전지대 확보사업’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화재 지표조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도 추가 매입부지만이 아닌 기존 사용하고 있는 학야리 전차포사격장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소음과 진동 등의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수 기자**

자연산이 맛있는 집!

# 우와! 싱싱하다

횃집  
건어물

늘 처음처럼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개업 1주년 특별이벤트

### 직거래 특별 이벤트

- 자연산 전복치 **30%** 할인
- 동해안 홍게 활어 **30%** 할인  
도·소매 및 택배전문

### 2009년 연중 특별할인 행사

- 매주 수요일 **10%** 할인
- 자원봉사자(카드지참) **10%** 할인
- 장애인 65세이상 어르신 동반 **10%** 할인
- 회 포장 주문시 **20%** 할인



대표 이 동 기

속초시 장사동 565 장사항횃집단지 ☎633-7744

## ◆범죄피해를 당하셨습니까?

##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가족들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 ▶상담지원 : ※전화상담 ※면접상담 ※방문(출장)상담 ▶의료지원 : 병원안내 및 동행,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 의료비 지원
- ▶법률지원 : ※형사조정 ※정보제공 ※수사기관 법정동행 ▶경제적지원 :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자 ※경제적지원 ※학자금지원 ※취업알선

법무부 춘천 지방 검찰청 속초지청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락처 : 033. 638-1111 속초시 동명동 280-2 속초지청 정문 앞 동명빌딩 2층

토지·임야·APT  
상담환영

## 동경부동산 D&C

(교동 아남프라자 앞)

TEL : (033)638-5200

FAX : (033)636-3700

### (속초)

- 1. 속초시 교동 속초여고 후문 원룸 대67 건40 원룸 15개실 월수익 300 매2억7천
- 2. 속초시 영랑동 속초의료원 인접 2차선도로접한 대지 447㎡,건물100㎡ 매2억5천  
현재 근린생활용도로 사용중
- 3. 속초시 노학동 온정초등학교 남측 제방도로접한 전 2,023㎡(612) 매4억
- 4. 속초시 장사동 삼환아파트인근 4차선도로접한 임야 14,060㎡ 매17억
- 5.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부근 펜션부지 240평 매매 평당 200만
- 6. 속초시 조양동 대포동 펜션밀집지역내 임야 440㎡(133) 매2억4천
- 7. 속초시 노학동 응골마을내 포장도로접한 전 3,300㎡ 매4억
- 8. 속초시 중앙동 중앙시장인접한 식당및 여관의 근생4층건물 매6억
- 9. 속초시 노학동 미시령 신도로접한 담 3,300㎡(1,000) 매8억
- 10.속초시 노학동 순두부마을 남측도로접한 대지,담 5,500㎡(1,660) 매6억
- 11.속초시 동명동 수복로인접한 고지대 바다전망좋은 나대지595㎡(180) 매1억5천
- 12.속초시 조양동 정수장인접 임야 7,000㎡(2,140) 매3억2천

### (고성)

- 1. 고성군 현내면 목장용지 임야 60,000㎡(18,000) 매10억
- 2. 고성군 토성면 교암 국도접하고 바다전망좋은 전 3,000㎡(900) 매8억
- 3. 고성군 죽왕면 전원주택,펜션지 10필지 필지별 3,000㎡내외 매7천만
- 4.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초등학교 인접한 전 2,100㎡(630) 매1억6천

- 5.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전원주택,식당부지 담 2,600㎡(772) 매1억9천
- 6.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국도접한 임야 16,000㎡(5,500) 매13억7천
- 7. 고성군 현내면 화곡리 소나무좋은 임야 25,300㎡(7,650) 매1억
- 8.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바다접한 임야 18,000㎡(5,500) 매13억 7천
- 9. 고성군 토성면 원암-천간간 신도로접한 임야 9,900㎡(3,000) 3.3㎡당30만
- 소규모 1,600㎡(약 500)분할매각 가능
- 10.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하천접한 담 3,300㎡(1,000) 매4억
- 11.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전원주택용 소규모 임야(300-500) 3.3㎡ 15만
- 12.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하천접한 임야 20,000㎡(6,000) 매15억

### (양양)

- 1.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마을접하고 바다전망최적임 임야 16,000㎡(4,800) 매19억
- 2.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해수욕장 인접,해안도로접한 전 1,290㎡(390) 매4억7천
- 3. 양양군 강현면 하북리 양지마을인접한 임야 3,300㎡(1,000) 매3억
- 4.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임야 26,500㎡(8,000) 매4억
- 5. 양양군 현북 임야 990,000㎡(300,000) 상담
- 6. 양양 서면 갈천리 펜션부지 (310평) 전 매 4천5백만

### (인제)

- 1. 인제군 북면 한계리 전원주택용 전 1,100㎡(330) 매8천

### 농어촌산업박람회서 양양송이 우수성 알려

양양군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 고양 일산컨벤션에서 열린 2009 농어촌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군은 '메이드인 그린 페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 홍보전시관과 가공식품전시관 등 4개 부스를 개설, 송이가공식품 생산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국산 특산품의 명품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박람회에서 양양군은 양양송이 가공식품 외에도 송이축제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송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상세하게 전했다.

양양군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도시자본의 지역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양양송이는 브랜드만으로도 이미 경쟁력과 인지도가 높지만, 산업화로 인한 진입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주관한 2009 농어촌산업 박람회에는 양양군을 비롯해 전국 100여개 자치단체에서 4만여명이 참가했다.

김주현 기자

설악신문 구독 및 광고문의  
☎636-2222-6

## “우리는 전통재래시장 살리는 동창생”

### 중앙시장 상인 64명 상인대학 졸업...총 50시간 수강

속초관광수산시장(중앙재래시장) 상인들이 지난 8일 상인대학 졸업식을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3시 금호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속초관광수산시장활성화구역 상인대학 졸업식에는 64명의 상인들이 참가해 졸업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졸업식장에는 명예학장인 채용생 시장을 비롯해 김성근 속초시의회의장, 김진기 시의회부의장, 시장경영지원센터와 한국유통기술개발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사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들으며 이 자리에 서게 된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한두삼 속초관광수산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고 상인대학에 나와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에 임해준 상인대학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상인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각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용생 시장은 격려사에서 “전통재래

시장을 살리겠다는 염원으로 생업을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의실을 찾아 오늘 졸업을 하게 돼 더욱 뜻 깊다”며 “이번 상인대학에서 배운 마케팅기법을 더욱 활용해 중앙재래시장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이영분씨(일흥건어물)가 졸업생 대표로 채용생 명예학장으로 부터 졸업장을 수여받았고, 심경래(장안횃집)·이영분씨가 시장경영지원센터 원장상을 받았다.

또 김미자(미찌꼬), 나복순(고아라), 이초순(압구정건어물), 이미숙(동해건어물), 장의석(오방호떡)씨가 표창장을 수상했다.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올해 들어 전국 1,600여개 전통재래시장 중 속초관광수산시장을 포함한 83개 시장을 상인대학



속초관광수산시장활성화구역 상인대학 졸업식이 지난 8일 금호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으로 선정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들은 지난 4월 1일 중앙상가 2층 상인교육장에서 입학식을 갖고 지난달까지 매주 2회(총 50시간)씩 신상품개발 및 활기찬 시장 만들기 등의 기본과정과 고객감동서비스 실습 등의 심화과정 교육을 받았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지난 2006년도 시범시장으로 선정돼 120여명의 상인들이 상인대학에서 졸업과정을 밟았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 “황토로 친환경 도로 포장”

### 고성군 농로 포장 어스자임공법 시범 도입

고성군이 새로운 친환경 도로포장 방법인 어스자임(Earth Zyme)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간성을 신안리 삼익아파트 뒤에서 금수천과 남천 합류지점에 이르는 450m 구간의 폭 5m 농로 포장공사에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토질강화 안정제를 이용한 노면포장의 새로운 방식

인 어스자임 공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어스자임 공법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 대신 황토에 효소, 계면활성제, 전해질 등을 혼합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포장공사로 고성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해당 공법은 공사비가 기존의 아스콘이

나 콘크리트 포장에 비해 비싸지만, 일반 토양과 색깔이 비슷해 보행자의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땅을 밟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국내 최초 친환경 토질강화 안정제를 이용한 어스자임(Earth Zyme) 시범포장공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청정지역 최북단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고성군은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 시공회사인 '매직 사 이퍼 월드'가 지난 8일 어스자임 방식으로

도로포장을 실시했으나 실패했다.

군 관계자는 “공사 전날인 지난 7일 내린 비로 황토가 수분을 많이 흡수해 다지는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11일 다시 다지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공법은 성공만 한다면 친환경 소재로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에 상당한 효과 기대된다”며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시범사업이라 재정적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 글라스박스 속초점

## 디자인 뛰어난 프랜차이즈 안경점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씨가 경영하는 프랜차이즈 안경점 '글라스박스(Glassbox)' 속초점(대표 박형근)이 지난달 23일 속초우체국 옆 (구)기아자동차 자리에 오픈했다.

'글라스박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내 패션 트렌드를 지향, '케서린 헬멧 런던'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국내에서는 단독 유통경로를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가리, 아르마니, 셀린 등 유명브랜드 제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유명브랜드라 가격이 부담될 법 하지만,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2만원대에서 시작하는 저렴한 제품들로 구비됐다.

박형근 대표는 “전국 매장을 보유하다보니 제품 디자인이 어느 매장에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며 “제품만을 앞세우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이뤄가겠다”고 했다.

글라스박스 속초점은 지난달 23일 오픈행사에서 가수 신지의 팬 사인회를 열어 시선을 끌었으며, 이달 말까지 최대

30~20%(일부품목 제외) 할인해 주는 오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매 고객에게는 도자기 수저통과 고급타올, 미니 화분 등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A/S도 제품의 구입기간으로 부터 최대 1년까지며, 무료 시력검사도 해주고 있다.

특히 박 대표는 오픈과 함께 최신 검안 시스템을 도입해 난시 및 안과 처방도 가능하며, 원근양용렌즈인 누진 다초점 렌즈로 원시와 근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고객에게도 맞춤형



지난달 23일 글라스박스 속초점 오픈행사에 참석한 가수 신지와 박형근 대표가 기념촬영을 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산소가 투과돼 장시간 착용해도 눈에 무리가 적은 RGP 콘택트렌즈와 1회용 콘택트렌즈 등 최근 상용화된 제품들도 취급하고 있다.

박 대표는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모든 제품이 정찰제로 판

매돼 믿고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 글라스박스 매장은 속초점과 춘천점 단 두 곳만 운영되고 있다. 설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곤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영업시간은 오전9시30분~오후9시30분까지.<문의 : 636-3232>

이우철 기자

기획취재 / 동해안 해안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4>

# 해안특성 고려 친환경 해안개발 새지평 열어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해양도시 설계...무안-친환경 생태갯벌센터 조성

— 글 쓰는 순서 —

- ① 설악권 해안개발의 실태- 현황
- ② 설악권 해안개발에 실태- 문제점
- ③ 동해안 교두보 강릉시의 해안개발
- ④ 서해안 선두주자 여수·무안의 해안개발
- ⑤ 남해안 해안개발의 중심지 통영시
- ⑥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개발 성공모델
- ⑦ 설악권 해안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및 좌담회

## ④ 서해안 선두주자 여수·무안의 해안개발

다도해로 이뤄진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도시 여수시는 안정적인 해안개발을 통해 국내 해양관광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서해안의 갯벌생태보고인 무안군은 친환경 생태갯벌센터의 운영으로 해안가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며 모범적으로 해안을 가꿔나가고 있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인 여수시는 체계적인 해안개발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무안군은 2008년 6월 함평만이 전국 최초로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해안자원 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세계박람회 준비하는 해양도시 여수

남해안의 중심해양도시인 여수시는 동해안과는 다른 해안조건을 지닌 지역특성상 해변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동해안처럼 해안가의 난개발이 우려될만한 대규모 리조트가 그동안 해안가에 전혀 조성되지 않아 비교적 해안경관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수는 많은 섬으로 이뤄진 다도해의 지역특성을 살린 자연적인 해양관광을 적극 활용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오다,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체계적인 해안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여수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핵심지역은 2012 세계박람회의 예정부지인 신항지구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 여수 세계박람회는 그동안 자연경관에만 의존하던 해양관광의 패턴을 대규모 테마파크 개발을 통해 역동적인



한려수도국립공원 해안관광의 백미로 꼽히는 여수해안. 돌산대교에서 바라본 여수 해안가는 세계박람회 유치로 활력을 얻고 있다. 작은 사진은 여수 최초 리조트 디오션.

해안으로의 변화를 구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박람회 부지인 신항지구에 오션타워와 바닷길 등 자연과 인공이 잘 조화된 바다전시장과, 남해안의 특징인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를 축소한 인공습지, 인공해변 등으로 구성된 다도해공원 연안을 체험공간으로 조성해 단숨에 모든 해안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연적인 해양관광에만 기대던 관광패턴을 체험과 소비 위주로 전환시키며 경제활성화는 물론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원동력에 힘입어 그동안 해안가에 리조트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던 여수시는 지난해 소호동 해안가에 대규모 리조트인 디오션리조트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하

지만 설악권과는 달리 긴 해변이 적은 관계로 최대 리조트단지로 불리는 디오션리조트는 해안가 반대편의 낮은 야산을 깎아 지은 온천수를 활용한 테마파크로,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소호동 해안가에 위치한 소호 요트경기장은 88올림픽을 비롯해 각종 국제대회를 치러내며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한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해양도시 여수는 이처럼 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역동적인 해안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계해 널리 알려진 한려해상국립공원(오동도)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해 돌산도, 거문도, 사도, 백도,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 등 준비한 해안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유치 후 다도해와 해안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전제 아래 대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다도해의 해안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안가와 떨어진 곳에 리조트를 조성하고 신항지구를 지정,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해양테마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를 유효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는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동해안 설악권이 최근 양양 오산포 해변에 대명 쏘비치가 바짝 들어서 해안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의 우려를 자아내

는 반면, 여수시는 사도와 방죽포해수욕장 등 7개의 해수욕장이 있지만 주변에는 대규모 리조트가 전혀 없다.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여수가 마지막 보고인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세계박람회 부지인 신항지구에만 해안개발사업을 집중하면서 차별화된 해안관광자원화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는 동해안과 달리 많은 섬으로 이뤄져 긴 해안선이 없는 관계로 그동안 대규모 해안개발사업은 없었지만, 다도해와 연계한 수많은 해양관광자원을 원형보전하면서 각종 해양관광테마와 인프라는 풍부한 편이다”며 “최근 세계박람회 조성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개발을 방지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안 이용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친환경 갯벌생태관광의 거점 무안

2001년 전국 최초로 갯벌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안군은 말 그대로 갯벌로 대표되는 서해안을 친환경 생태체험관광지로 가꿔나가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해안특성상 동해안처럼 해안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지만 해안특성을 가장 효율적이고



무안군이 갯벌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하반기에 개소하는 생태갯벌센터.

# 여수 · 무안 해안개발새 모델 제시

10면에서 이어짐▶

친환경적으로 살려 나가고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

무안갯벌은 총면적 204.7km로 전국 갯벌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함평만과 탄도만, 청계만을 포함하고 있다.

무안군은 천혜의 자연생태보고를 지닌 갯벌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2001년 12월부터 무안생태갯벌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생태보고인 무안갯벌의 친환경적 생태체험을 통해 갯벌도 보존하며 생태관광으로 지역브랜드 및 경기부양을 이끌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무안생태갯벌센터를 탄생시켰다.

무안생태갯벌센터는 2006년 신축공사에 들어가 습지보전시설사업을 준공하고 2008년 1월에는 람사르습지 제1732호로 등록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곳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무안생태갯벌센터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6월에는 전국 최초로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 현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무안생태갯벌센터는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1-1번지 일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3,277㎡로 총사업비 197억원을 투입, 갯벌생태공원과 편의시설, 야외학습장, 생태체험장 등 서해안 갯벌을 한눈에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테마체험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외부시설에는 생태공원과 염전체험장, 김 말리기 체험장, 해양생물관찰 탐방로 등을 조성해 갯벌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무안군은 하반기에 개소되는 생태갯벌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송계와 월두 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해 갯벌체험과 개매기 체험, 갯벌마당놀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램도 준비하고 있다.

무안갯벌은 153종의 저서 무척추동물과 95종의 초대형 무척추동물, 식물성 플랑크톤, 유용 수산생물, 조류 38종이 서식하는 서해안의 자연생태보고다.

무안군은 8년 전부터 갯벌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적 테마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해안가 갯벌을 특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무안갯벌은 자연침식된 육지의 토양과 사구의 영향으로 특수한 갯벌지질을 지니고 있으며, 갯벌의 생성과 소멸과정의 관찰이 가능하고 갯벌의 자연생태인 원시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갯벌습지로 인정받고 있다.

무안군은 이런 특성을 최대한 살려 전국 최초로 친환경적 무안생태갯벌센터를 조성, 자연환경의 올바른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갯벌의 자연생태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소중한 자연자원을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태갯벌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가꿔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해안의 해양중심도시 여수와 갯벌생태보고 무안은 이처럼 제각기 지닌 해안환경을 가장 적절하고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면서 해안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해안 해안개발에 던져주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김주현 기자

joc69523@hanmail.net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또 경동대 관광학부장 소대영 교수가 자문을 담당합니다.

## □ 전문가 인터뷰 / 경동대 소대영 교수(관광연구소장)

### “여수 · 무안 해안개발정책 눈여겨보아야”

소대영 교수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여수는 풍부한 해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 정도로 해안개발의 가속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며 “더 나아가 주변지역과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획기적인 해양중심도시로 성장을 시도하는 대목은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이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이다”고 분석했다.

또 “서해안의 대표적인 생태습지보전 지역인 무안군의 생태갯벌센터는 해안



보전의 중요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면 그 시너지 효과를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소 교수는 “설악권과 강릉시로 대표되는 동해안도 향후 2015년 교통물류 혁명이라 불리는 동해 ·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경제공동체를 형성, 규제완화를 통한 친환경적 해안관광을 광범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주현 기자 joc69523@hanmail.net

## 프리랜서 전망대(68) 차기 속초양양교육장의 조건

# 교육 본류 지키는 참교육자 위해



속초시 교동에 위치한 속초양양교육청 전경.

속초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명예스런 기록이 있다. 역대 속초시 부시장 자체 승진이 한 번도 없었다. 속초 출신 관내 교육장이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다.

속초교육청이 속초양양교육청으로 명칭 변경된 게 2006년 3월부터다. 21대인 현 최현규 교육장의 임기는 8월31일까지다. 21대에 이르기까지 속초 출신 교육장이 한 명도 없었다.

### 교육장 임명원칙 지켜질까

오는 9월1일자 22대 교육장 하마평이 이미 오래전 물밑에서 특정지역 출신 2명으로 압축돼 오르내리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인 전모씨와 고성교육청 교육과장인 이모씨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지역 출신의 동갑내기로 강릉고와 양양고를 각각 졸업했고, 강릉 교대와 춘천교대로 나뉘져 있다.

강원도교육청 산하엔 17개 교육청이 있다. 도에선 유일하게 양양교육청만이 없다.

시 단위 교육청의 교육장은 중등출신이, 군 단위 교육청의 교육장은 초등출신이 맡아온 게 오랜 관행이었다고 한다.

속초양양교육청도 4~5대 전까진 중등출신이 교육장을 맡았다고 한다. 고성교육청 교육장이 지난 2007년 기존 초등출신 교육장에서 중등출신 교육장으로 처음 바뀌었다.

문제는 춘천이나 원주 등은 교육장 임명원칙이 관행대로 철저히 지켜지는데,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 지역의 교육장 인선원칙은 인사권자인 도교육감 자의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는데 있다. 물론 교육장이 초등이면 교육과장은 중등출신이, 교육장이 중등이면 교육과장은 초등이 맡는 등 실무진 구성에서는 균형을 맞추고 있다.

속초양양교육청과 더불어 내년 3월1일자로 신입 고성교육청 임명이 예정돼 있다.

일선 교장이건 전문직이건 교육장이건 각 분야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정년이 보장된 교육공무원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는 아마 인사와 예산권 행사일 것이다.

내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시장 · 군수, 도의원(비례대표 별도), 시 · 군의원(비례대표 별도)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감과 도의회 내 교육위원도 주민이 직접 뽑게 된다. 유권자들은 현정 사상 최대인 1인 8표제를 행사해야 한다.

교육감의 경우 내년 2월 재선인 현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3선이 가능해지면 현 교육감도 출마가 가능하다. 도교육감 선거가 이제 국회의원선거보다 더 치열할지도 모른다.

학교운영위원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바뀌어 치르는 첫 선거라 도지사 후보자와의 연대 등 교육보다 정치바람에 더 더욱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의 교육수장인 교육장이 지역정가와 무관하게 독자청청을 부르짖을 수 있을까. 각 학교 자모회의 치맛바람은 어쩔 것이며 승진 등 임명과 발령에 목을 매는 교사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 내년 강원도교육감 직선이 관건

교육은 선교인간 후교지기(先教人間後教知技)라 한다.

인간교육을 한 후에 지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을 가르쳐야 함을 말한다.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덕을 갖추게 한 후 창의성, 개성을 기르는 교육이다. 교육 주체(지역, 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간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학생들의 실력, 인성 모두가 향상될 수 있다.

가정과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됨의 교육을 위해 건전한 가치관과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작은 사랑 나누기를 통한 배려와 봉사의 습관을 정착시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줄 아는 교육철학 소유자가 우리 지역의 교육수장이 됐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다.

이수영 프리랜서 기자

학교매점을 바꾸자(1) - 학생들이 본 학교매점

학교매점은 중·고교생 열에 일곱은 하루에 한번 이상 찾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불량식품 판매 등의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학교매점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올바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2회에 걸쳐 학교매점을 집중 조명해 보는 연재기획물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교매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 봤습니다. <편집자 주>

# 10명 중 5명 학교매점 환경 '불만족'

## '만족'은 15% 불과...학생휴게실로 변화 바라

### 중·고교생 242명 대상 설문조사

속초지역 중·고교생 10명 중 5명은 학교매점의 규모와 시설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학생 휴게실로의 변화 모색 등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악신문사가 지난 8일 속초 관내 7개 중·고교(1개반씩 표본조사) 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매점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매점의 규모나 시설 환경 등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인 50%의 학생이 '다소 불만' (33%), '매우 불만' (17%)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매우 만족한다' (3%)와 '다소 만족한다' (12%)는 응답자는 15%에 그쳤고, 35%의 학생은 '보통이다'고 답변했다. 학교매점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은 중학생(57%)이 고등학생(41%)보다 많았다.

### 공간 좁고 쾌적하지 않아

주관식으로 묻은 학교매점의 '불편한 점과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매점공간이 좁고 쾌적하지 않다'며 의자와 탁자 등을 갖춘 학생 휴게실로의 변화를 바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다양하지 않은 품목, 할인되지 않는 정찰제, 불량식품 판매, 위생 상태 불량, 유통기한의 염려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학생 10명 중 7명은 하루 한번 이상 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몇 번 정도 학교매점을 이용하느냐'는 질문에 '1회' 33%, '2회' 25%, '3회' 9%, '4회' 3%로 조사됐으며,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학생은 30%로, 중학생(34%)이 고등학생(24%)보다 많았다.

학교 매점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57%로 가장 많았고, 점심시간(37%)이 뒤를 이었다. 아침 등교시간과 하교시간, 야간 자습 사이는 각 2%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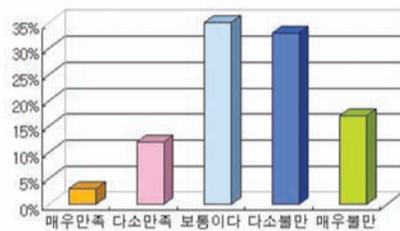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이 주로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매점을 이용함에 따라 수업 중에 음식물을 먹거나, 화장실 이용 시간을 놓치는 등 다음 시간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매점에서 주로 구입하는 물품은 '빵종류' (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아이스크림 종류' (21%), '소시지·만두·햄버거·김밥 등 가공식품 종류' (21%), '과자 종류' (19%)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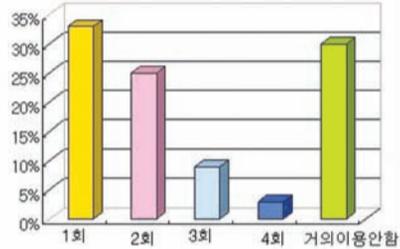
학교매점에서 하루 쓰는 돈은 100~900원 (62%)이 가장 많았고, 1,000~1,900원(32%), 2,000~2,900원(5%), 3,000원 이상(1%) 순이었다.

학생들은 매점에서 즐겨 사먹는 품목 중 견장에 해로울 것 같은 품목으로 대체로 통다리

학교매점 규모 시설 만족도



학교매점 1일 이용횟수



(오징어가공품, 중국산)와 라면, 햄버거, 가공햄 등을 꼽았다. 교사들은 햄버거와 가공햄의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 원자재의 질적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10명 중 7명 가까이 학교매점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매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면이 있어 좋다'고 답했으며, '학교생활에 좋지 않은 면이 있어 나쁘다'는 부정적인 입장은 10%로 적었다. 23%는 학교생활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 학교매점 배고픔 해결

학교매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78%),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기' (19%)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의 학생들은 '쓰레기가 많아져 학교가 지저분하다' (36%), '돈을 많이 쓰게 된다' (32%), '아침밥이나 급식을 안 먹게 만든다' (32%)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이유를 꼽았다.

일주일에 아침밥을 먹는 횟수는 67%가 매일(5~6회) 먹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거의 안 먹'거나 '1~2회 먹는다'는 학생은 각각 16%와 5%로 나타났다. 3~4회는 12%로 조사됐다. 아침밥을 안먹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69%로 가장 많았고, '먹기 싫어서' (31%)가 뒤를 이었다.

정오현 속초중 교사는 "학교나 교육당국에서 학교매점의 환경이나 먹을거리의 안전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규모를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학생휴게실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재환 기자

교/단/일/기

# 말(言),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

"선생님, 4교시까지만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녀석이 또 어려운 부탁을 한다. 이유는 대중 짐작이 간다. 소년체전 농구 연습 때문일 것이다. 짐작대로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부탁이다. 당연히 No. 이어지는 녀석의 대답, "저 그럼 농구 안할래요." 농구대회에 나가라고 강요한 기억이 없다. 어느 날 제 놈들이 찾아와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하면, 잘 해보라고 응원해 준 기억 밖에는 없다. 그런 제 놈들이 나에게 협박을 해? 어쩔 수 없지. '훈계'해주는 수밖에. 간단하다. '책임감, 자율성' 따위의 단어들과 엄숙한 목소리면 충분하다.

준비를 하고 녀석의 눈을 바라본 순간, 흠뻑한다. 이놈도 준비가 되어 있다. 내 훈계를 받아낼 준비가. 눈치보고 분위기 감지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태도를 미리 취한다. 정해진 각본대로의 훈계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과 "죄송합니다"의 예정된 '대화합'으로 마무리 되는 게 보통.

'문제 해결' 없는 '상항 종료'. 짬짬하다. 지금 녀석의 눈이 이 모든 걸 말하고 있다. 안되겠군, 제도 수정이다. 일단 의자를 권해주고 조심스레 운을 뚫다. "뭐가 문제니? 왜 그러는데?" 억울함을 가득 담은 녀석의 얼굴. 순간 입이 움찔하다 멈춘다. 대신 눈이 말을 한다. '말하면 뭐해요.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냥 빨리 혼이나 내고 끝내세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본다. "너를 혼내자는 게 아냐. 네 애길 듣고 싶어서 그래." 녀석의 표정이 말을 한다. '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선생님, 대본대로 하셔야죠!'

조심성 많은 강아지처럼 머뭇거리며, 눈치 보며 녀석이 입을 뚫다. "농구 연습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학교에선 아무 배려도 없어요."

다른 학교들 보면... 가만, 그럴 때 교사의 역할은? 필사적으로 머릿속을 검색한다. '공감하기'. "그래, 정말 힘들겠다, 저런." 반응이 온다. 녀석의 표정이 달라진다. "네, 맞아요"로 시작된 녀석의 입이 이제야 제 구실을 하고, 입을 대신하던 눈도 한 시름 던다. 물론 그 와중에도 타이밍 적절한 공감하기는 필수.

시간이 흐르면서, 붓물 터지듯 쏟아진 녀석의 말들은 수압이 슬슬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서서히 '상황종료'가 아닌 '문제해결'을 할 시간. 다시금 머릿속을 뒤적인다. '문제 해결?', 이걸 내 몫이 아니라 녀석의 몫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에 익숙하지 않은지 녀석이 혼란스러워 한다. 저런, 저런. 좀 도와 줘야겠군.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흠, 근데 그건요." 녀석의 반론에 제법 논리가 담겨있다. "그럼 이런 건 어때?" "아, 근데, 그러면요." "오~합리적인데!"

이게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불평만 대고 혼날 준비나 하던 녀석이란 말인가? 신이 난다. 녀석이 결정타를 날린다. "그럼, 이렇게 해야겠어요." 오오~ 순간, 찬란한 후광이 녀석의 머리 뒤에, 광과레 소리가 교무실을 꽉 채운다. "그래, 그러면 되겠다! 잘 할 수 있겠어?" "뭐, 해봐야죠." 멧쩍게 피식 웃는 녀석. 부쩍 커 보인다.

항상 말할 준비가 되어있는 우리들, 그리고 들어줄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하는 아이들. 아니지! 항상 말할 준비가 되어있는 아이들, 그리고 들어줄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하는 우리들. 한결 낫다.



유길현 설악중 교사

### ■ 교육책꽂이 / 연을 쫓는 아이

## "도련님을 위해서면 천 번이라도..."

<연을 쫓는 아이>는 아미르가 어린시절을 거쳐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도련님을 위해서면 천 번이라도 그렇게 할게요"를 말하며, 늘 아미르와 한몸과 같은 존재 하산과 아세프 일당과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성장소설이다.

아미르와 하산의 이야기는 1979년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기 이전부터 9·11 테러사건 후에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 미국이 탈레반 통치하의 이 나라를 공격한 시

점까지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의 슬픈 역사와 아름다운 풍속과 관습이 담겨 있다.

아프카니스탄의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책이다. 하산의 말이 마음에 남는다.

"도련님을 위해서면 천 번이라도 그렇게 할게요."

할레드 호세이니 저/ 이미선 옮김/ 열림원. 황은숙 / 거진중 교사



# 돌감자들, 대청봉에 오르다

## 장학회, 희망·용기 주는 산상 기념식

### 박무웅 회장 등 33명

돌 위에 감자꽃을 피우자. 산비탈 돌 틈 사이에서 어렵사리 예쁜 꽃을 피우는 감자꽃. 배고픔을 달래주는 양식이 되는 돌감자 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꽃갓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자는 취지로 발족한 돌감자장학회. 그 뜻 깊은 34회 기념식이 지난 6일 오후 1시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 정상에서 열렸다.

이날 일흔을 앞둔 장학회 박무웅(69세, 속초시 도문동 거주) 회장과 친우들, 멀리 캐나다에서 귀국한 가족, 어린 초등학생 등 전국에서 달려온 33명의 장학생 가족들은 오전 7시 오색에서 출발해 대청봉까지 4~5시간 이상 험한 산길을 오르느라 비지땀을 흘렸고, 뿌듯한 마음으로 대청봉에 오른 돌감자장학회 가족들은 산 정상에서 간단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모두 11명의 돌감자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고, 격려의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를 기획한 돌감자 장학회 박무웅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꽃갓하게 자라는 장학생들에게 땀흘려 산 정상에



지난 6월 6일 돌감자장학회 34회 기념식이 대청봉 정상에서 열렸다.

오르는 수고로움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975년 10월 당시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있던 박무웅 회장이 박봉을 쪼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첫발을 내딛은 돌감자장학회는 34년이 지난 지금도 해마다 국내 학생 11명과 중국 흑룡성강 연수현 연수조선중학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회장은 지금도 장학회 가족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천리를 멀다 않고 전국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 어려움을 함께 하고, 해마다 중국으로 직접 찾아가 조선족 장학생을 격려하고 있다. 장학회 가족들 모두에게 일년에 몇 차례 안부전화를 통해 사랑을 전하기도 한다.

염경선 프리랜서 기자

# 현역부사관 70대노인 살려 바다서 구조 응급조치



현역 부사관이 속초 앞바다에 빠진 70대 노인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102기갑여단에 따르면 예하 정보통신중대 후방 지원반장으로 복무 중인 원중식 중사(29, 사진)는 지난달 27일 밤 9시경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앞 해변을 산책하다 바닷가에 신발을 벗어 놓고 바다에 빠진 김모(77, 여) 씨를 발견했다. 원 중사는 곧바로 물속에 뛰어들어 김 할머니를 구조했지만 호흡과 맥박이 희미한 위급한 상태여서 인공호흡으로 김 할머니의 의식을 되찾게 한 뒤, 119에 신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원 중사는 "산책 중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 평소 군에서 익힌 대로 구조해 응급조치했다"며 "할머니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119 구조대원들은 "당시 상황에서 구조자가 초기 응급조치를 매우 잘해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원중사의 차분하고 신속한 조치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김 할머니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달 27일 가출사고가 접수돼 있던 상태였다.

한편 부대측에 따르면 원 중사의 이 같은 선행은 해경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김 할머니의 아들(55, 서울)이 부대로 감사의 전화를 걸어와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이용수 기자

설악신문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연어와 송이의 고향, 양양에서 펼쳐지는 여름 낭만의 금빛레이스

#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

동해안 최적의 해양레저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천혜의 양양군에서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펼쳐지는 전국 요트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 명품&웰빙도시, 양양군이 올 여름 시원하고 낭만이 가득한 해변추억을 약속드립니다.



- ◆기간 2009. 6. 18~22일
- ◆장소 양양군 수산항 요트마리나
- ◆주최 해양경찰청 · 대한요트협회
- ◆주관 속초해양경찰서 · 강원도요트협회
- ◆후원 강원도 · 양양군 · (주)세정
- 대회 경기종목 15개 종목 32부
- 참가대상 전국 초·중·고·대학·일반부
- 참가규모 210척 · 230명

#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할 것인가”



## 시민기자 광장

※ 본란은 설악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설악신문 시민기자들이 보내주시는 원고로 꾸며집니다.

제51회 참교육문화강좌 인권활동가배경내씨 청소년 인권 강연

인권교육센터 ‘들’의 상임활동가인 강사 배경내씨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삶을 규정하거나 해석하기 전에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랑·보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의 받지 않은 강제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린이·청소년을 미성숙한 보살핌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 속초고성양양지회의 제51회 참교육문화강좌(청소년 인권 강좌)가 열렸다.

강사는 묻는다. ‘어린이·청소년은 부모가 먹고 키우는 한,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소유물’로, 부모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는 아닌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대개 헌신적 사랑으로 충만해 있지만, 사랑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현재를 속박하고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는 않은지? 부모의 고생에 보답하기 위해 아이들은 인권을 반납하고 입시 준비에 매진하면서 청소년기를 견뎌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교, 학교생활, 교육, 진로선택, 결혼, 소송 자격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모는 보살핌을 넘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교복과 두발, 입시 제도를 그대로 둔 채 학생 인권을 말하는 건 아이들을 속이는 짓은 아닌지?’

돌아보니 “어린이는 미래를 살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대할 때는 진지하게, 부드러움과 존경을 담아야 합니다”라는 아누쉬 코르착의 말처럼 ‘어린이를 사랑하기 이전에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에 우린 살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어린이·청소년의 시기를 과도기가 아닌 현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억압하는 것들을 바꾸어내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강연에 참석했던 유미선 교사(설악여중)는 “학생들을 ‘규제의 대상’이나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지닌



지난 11일 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참교육강좌에 참석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건 시사점이 있지만,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지켜주기 위해 교사들이 바람직하게 변한다고 해도 사회 전체가 함께 변화하지 않는 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처음으로 이 강연에 참석한 서예슬 학생(설악여중)도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데, 청소년이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선 자신이 존중받기 전에 타인을 먼저 존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율권력에 대해서는 용기 내어 입장을 밝

힐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한 시대, ‘인권과 사랑과 교육’이 함께 꽃필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찾아 나서야 함을 제시한 뜻 깊은 강연이었다.

1989년 시작해서 올해로 20년을 맞는 참교육문화 강좌는 9월 10일 「고래가 그랬어」발행인 김규형씨의 <진보의 거처를 묻다>와 11월 12일 진보신당 공동대표 심상정씨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초청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허은숙 시민기자



### 대청봉서 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박그림씨 1인시위

녹색연합과 설악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지난 7일 설악산 대청봉에서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는 이날부터 대청봉 정상에서 설악산 대청봉 케이블카 추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박 대표의 1인 시위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최유정 시민기자

## 헌 안경테(썬글라스)를 가져오세요 천일안경원 보상공매

기간 : 2009년 5월 15일 ~ 2009년 7월 15일 까지

- 20만원 이상 구매시 ▶ 5만원 보상
- 10만원 이상 구매시 ▶ 3만원 보상
- 5만원 이상 구매시 ▶ 2만원 보상
- 3만원 이상 구매시 ▶ 1만원 보상

헌 안경테는 중국·베트남  
의료봉사에 쓰여집니다

※ 행사기간 동안 상품권, 일회용,약품  
일부품목 제외

■ 주최 : 1001 안경콘택트 ■ 주관 : (재)한국 늘사랑회 ■ 후원 : 영동 극동방송

# 훈춘국제가요제, 역대 수상자 총출동

## 속초예총 올해 10주년...지역가수들과 한마당잔치

22일 출국...소학교서 예술특강

속초예총(회장 한기학)이 중국 훈춘시와 문예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훈춘시 국제가요제'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속초예총은 이와 관련, 올해 가요제를 경연이 아닌 역대 수상자들과 속초지역가수들이 출연하는 한마당 잔치로 열어 양 도시 우호증진에 나설 계획이다.

예총은 한기학 총괄단장을 필두로, 장규호 국제교류위원장, 정봉재 소학교 교류단장, 강종철 가요단장 등 지역예술인들로 구성된 26명의 방문단을 꾸려 오는 22일 동춘호로 출국한다. 채동생 시장, 배동욱 전 강원도 예총 회장, 김주완 도 예총 부회

장 등은 가요제 일정에 맞춰 합류할 예정이다.

올해 가요제는 24일 오후 6시 30분 훈춘시영극원에서 1~9회 가요제 수상자들과 김원기·김진우·한지혜 등 지역가수들이 출연하는 '10주년 기념 한·중 우정의 무대'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영극원은 속초의 문화회관 같은 공연장으로 900석의 객석이 마련돼 있지만 음향이나 조명 등 기본적인 시설이 미흡해 속초에서 무대 장비를 가져가 가요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10주년인 올해는 유료(15위안)입장객들을 위해 1,000개의 타월과 설악신문 등이 후원한 자전거(경품용) 15대를 조선족 동포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한기학 회장은 "두 도시의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현지 동포들에게 우리 민족이라는 동질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다는 점에 더욱 의미가 있다"며 "10주년에 걸맞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가요제 외에도 조선족 학교인 훈춘 제1실험소학교와 제4소학교 방문 사업도 병행한다. 25일과 26일 양일간 예총 산하 8개 협회 회원들이 1일 강사로 나서 예술특강을 실시하고, 백일장 및 아동미술 교류 시상, 예술반 창작극 감상, 문예 지도교사와의 간담회 등이 진행된다. 훈춘시 문련(예총)에도 방문한다.

이후 방문단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3국의 국경지역인 두만강하구를 탐방하고,



2006년 제7회 훈춘가요제 왕중왕전 대상수상자 황금석씨.

안중근 의사 활동지 등 항일 유적지 탐방에도 나선 뒤 30일 귀국한다.

이우철 기자

# “건봉사 복원 힘드네”...사적 지정 추진

## 고성군 “지방비만으로 복원 한계...국비지원 절실”

2017년까지 17동 복원...182억원 필요

1,500년 역사의 고성 건봉사가 사업비 부족으로 복원에 난항을 겪고 있어, 고성군이 건봉사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라 법흥왕 7년(서기 520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건봉사는 조선시대에 3,183칸의 대가람과 승려수 700명이 넘는 전국 4대사찰 중 하나였다.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 유정이 건봉사에서 의승군 6,000여명을 모집해 왜적을 무찌른 우리나라 대표적인 호국불교 도량

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이곳에는 부처님 진신치아사리 8과와 보물 2기, 도 문화재자료인 불이문 등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6·25전쟁을 겪으며 불이문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소실됐고, 민통선 내에 위치한 탓에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중건되지 못했다.

소실된 건봉사 복원은 1960년대 천갑 스님과 안동선 스님 등이 재건에 힘을 쏟았고, 이어 1982년 고성군이 건봉사를 도 지방기념물로 지정해 지표조사를 거쳐 1990

년부터 정비 및 복원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문화재청과 강원도, 고성군, 사찰 측은 지난해까지 총 75억6,300만원을 들여 대웅전과 팔상전·보안원 등 14동을 복원하고, 사적지정과 교량복원, 진입로 설치, 사명대사기념관 등을 신축했다.

복원사업은 2017년까지로, 극락전과 요사채·대지전·관음전·설법전 등 건물 17동이 추가로 복원될 계획이지만, 182억 여원에 이르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 진척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존 문화재 가치와 역사적 평가에

도 불구하고 건봉사가 지방기념물이다 보니 지방비로는 복원사업에 한계가 있어,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건봉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 전문기관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사적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건봉사의 역사적 가치를 고증하는 등 건봉사를 재조명한 후, 10월경 도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11월에 문화재청에 사적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건봉사는 도 문화재자료인 불이문과 사명대사 기적비, 부처님 진신치아사리 등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가 깊은 사찰이다”며 “이를 재조명하고 집대성해 문화재청의 사적 지정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 설악사진동우회 창립 10돌 특별전

18~내달 12일까지 5곳 순회...19명 참여

‘설악아, 곁에 있어줘서 늘 고맙다.’ 설악의 절경과 소박한 우리네 삶을 투영해온 설악사진동우회(회장 홍창해)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로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힌다.

설악사진동우회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속초와 양양지역 5곳을 순회하는 ‘10주년 기념 정기 전시회’를 연다.

홍창해 회장은 “설악권을 중심으로 사진이라는 취미여가 활동을 시작하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는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에 머물지 않고 창작 예술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며 “열 살이 됐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홍창해 회장을 비롯해 19명의 회원이 각 3·4점을 출품, 모두 60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인 만큼 따로 주제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출품한다. 덕분에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환한 빛을 뿜어내는 신수로를 중심으로 펼쳐진 동명항의 속초 야경에서부터, 거무튀튀한 낙엽 사이에서 자주색 꽃봉오리를 드리우는 설악산의 열레지, 오색 주전골에서 펼쳐지는 설악산의 길고 긴 장엄한, 세상을 알아버린 시골 할머니의 주름살까지 다양한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함께 동우회 활동을 펼치다 먼저 떠난 고 김영걸, 고 정태환 회원에 대한 회고 추념 시

간도 마련됐다.

홍창해 회장은 “우리 동우회는 카메라 작동법도 모르는 초보 회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며 “속초와 양양을 오가며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고 했다.

설악사진동우회는 1998년 창립 올해만 10돌이 됐으며, 현재 19명의 정회원과 2명의 명예회원이 등록돼 있다. 순수 아마추어 동우회로 출발했지만 2009년 6월 현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인 사진작가 10명이 배출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시회 일정 △엑스포주제관 전시실



(18~21일) △속초시청 및 나눔뜨락 (22~26일) △한화콘도 본관(27~30일) △양양대명솔비치 호텔동(7월 1~5일) △오색그린야드호텔(6~12일)

▲설악사진동우회 회원 △홍창해 △오현 △김보영 △박세인 △명수정 △황병진 △유홍균 △김성근 △이병열 △강연진 △고명자 △남창섭 △박대혁 △박봉균 △박종량 △이재형 △전영권 △천미정 △차순희

이우철 기자

# “순수한 모습 담을 수 있어 행복”

## 어려운 이웃 무료사진촬영 장애인 사진사 전호남씨



양양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장애인 사진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사진촬영을 해주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양양읍 남문4리에서 ‘전호남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전호남씨(38, 사진).

전씨는 지난 96년부터 양양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사진촬영을 해주고 있다.

특히 5년 전부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영사진을 무료로 찍어 주고

있다.

선천적으로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 6급인 그는 자신도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커왔기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갖고 있다.

전씨는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대할 수 있어 사진사라는 직업에 대한 보람이 크다”며 “어려운 이웃들의 해맑은 모습을 직접 담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미소를 지었다.

양양군지체장애인협의회 회원이기도 한 그는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인단체 행사나 개인적으로 사진이 필요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무료로 사진촬영을 후원하고 있다.

평소 활발하고 사려 깊은 전씨는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사진을 맡아 촬영하며 자신이 담은 좋은 사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창 행사가 많을 때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모든 주민들을 단골손님처럼 대하는 그는 모든 양양주민들의 다양한 얼굴을 사진에 담아내는 것이 사진사로서 받

는 시 이뤄내고 싶은 희망이라고 한다.

전씨는 요즘 사진관에서 영업하기보다는 현장에 나가는 출사촬영이 많아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순수한 모습을 담고 좋아하는 이웃들의 표정에 모든 시름을 잊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젊은세대 전쟁 · 분단 아픔 알았으면”

## 임복천 6·25참전유공자회 고성군지회장



“비 참 했던 6.25전쟁이 발발한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그때의 악몽은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네요.”

6.25참전용사였던 임복천씨(79, 사진)는 59

년 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호국보훈의 달 6월이면 유난히도 6.25전쟁 당시의 참담했던 모습들이 더욱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그때 당시의 모습이 절대 재현돼서는 안된다”며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분단의 아픔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안타까워했다.

경북 영덕이 고향인 그는 1949년 12월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했다.

해군종합학교가 있는 경남 진해에서 6개월간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바로 해군 제1함대 702함에 배치받아 신호장(수기와 발광으로 함선간의 연락을 주고받는 임무) 임무를 맡았다.

이어 전세가 아군에게 불리하게 흐르던 1950년 9월,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에 참전했고, 1951년 1.4후퇴때에도 흥남 부두에서 피난민을 수송하는 등 6.25전쟁 동안 전국의 전쟁터터를 누비며 험악한 전과를 세워 국가로부터 중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1953년 휴전이 되면서 예비역 해군 상사로 전역한 그는 전쟁통에 헤어졌던 부모를 찾아 강원도로 왔고, 양양경찰서 속초지서에서 1년간 해안경비정을 몰다 생계를 위해 명태잡이 어부로 고성 현내면 대진에 정착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인민군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무덤안에 그대로 버려진 모습 등 전쟁의 잔혹상을 직접 경험했다는 그는 “같은 고향 또는 이웃끼리 총을 들어대고 서로 죽이는

것이 바로 민족상잔의 비극”이라며 몸서리를 쳤다.

팔순을 바라보는 그는 현재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고성군지회 지회장을 맡아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지역에 뿌뿌이 흩어졌던 전우들을 규합해 6.25참전 동지회를 만들어 활동하다 지난 2001년 사단법인 6.25참전유공자회 고성군지회를 발족시켰고, 이어 2003년에는 전우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6.25참전용사 공덕비를 세우기도 했다.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6.25참전용사 위령비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그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잊고 사는 것 같다”며 “6.25전쟁 당시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순국선열들의 의지와 뜻이 후대에도 잘 전달돼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일깨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빠르게 변화하는 21C 멀티미디어 시대! 설악영상사업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 강원권 전역으로 방송되는 YBS “ VJ현장속으로 ” 와 KBS “ VJ리포트 ” 를 제작합니다

많은 시청과 제보 바랍니다. 항상 지역에서 일어나는 알찬 소식들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설악영상사업단 대표 김용국

방송영상,홍보영상,교육영상,이벤트영상 CD,DVD 제작

속초시 교동 아남프라자 1302호

문의. 033. 633-0402, 011-9799-7247 / 무료상담전화 : 080-455-1001

설악영상사업단



# ‘참’ 쓰레기 만들기로 분리수거 정착

## 제12회 강원환경대상(환경교육·홍보) 수상 장국보 속초고 교사

장국보(50, 사진) 속초고 교사가 강원도 등이 공동주최한 제12회 강원환경대상에서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 교사는 10일 오후 2시 춘천 베어스 관광호텔에서 열린 강원환경대상 시상식에 참석,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장 교사는 쓰레기종량제 실시(1995년 시행) 이전인 1993년부터 학교에 소각장을 없애고 학생들과 함께 ‘참’ 쓰레기 만들기(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활동)를 생활화해, 학생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학교 예산 절감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로 현재 재직 중인 속초고는 1,00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지만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100ℓ 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뤄지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만 연간 4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있다.

장 교사는 “(참 쓰레기 만들기)작업을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 모두가 동참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수거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학교에서부터 바른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쓰레기장은 더럽고 피하고 싶은 혐오 공간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환경교실이다”고 말했다.

장 교사는 특히 참 쓰레기 만들기 작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꺼번에 여러 개의 캔을 올려놓고 압축할 수 있는 캔 압축기와 쓰레기 확인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해주는 집진기 등 각종 기구와 집기류를 직접 제작, 체계적이고 신속한 작업을 가능케 했다.

덕분에 학생들은 20분이 주어지는 청소시간을 12~13분이면 넉넉하게 마칠 수 있게 됐고, 각 반에서 쓰레기를 전달 수거해 오는 학생들에게는 봉사점수를 부여,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길러졌다.

이번에 받은 상금은 참 쓰레기 만들기 사업장 내 차광시설과,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쓰레기자루 틀’ 제작에 사용할 계획이다.

장 교사는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가운데 참 쓰레기는 10%정도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다”며 “작은 실천이지만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바른 것을 보고 옳은 가치관을 갖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장 교사에 따르면 현재 참 쓰레기 만들기는 속초고를 비롯해 고성고, 속초여고, 설악고 등 설악권 일선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사대부고, 강원여고, 삼척고 등 도내 학교들에서도 속초고를 방문해 배워갈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우철 기자

# “실천하는 봉사단체로”

## 박근섭 속초라이온스클럽 회장



지난 13일 취임한 박근섭(47, 사진) 속초라이온스클럽 제44대 회장은 “관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많은 회원이 몸담고 있는 단체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봉사단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의례적인 후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찾아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몸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속초라이온스클럽은 올해 관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연탄·쌀 지원과 백내장 수술비 지원, 보청기 지급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속초 출신으로 현재 금호동에서 박근섭홈아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서포터즈 ‘동·사·도’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초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6년에는 속초초교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가족은 부인 윤인희씨와 2남. 이우철 기자

# “봉사는 기쁨이자 즐거움”

## 이상운 설악로타리클럽 회장



지난 13일 취임한 이상운(사진) 설악로타리클럽 제19대 회장은 “봉사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닌 기쁨이자 즐거움으로 느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로타리의 이상인 ‘초아의 봉사’를 실현하는 명품 봉사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로타리의 힘은 회원들의 단합에서부터 출발한다”며 “1년의 임기동안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주력해, 그 힘을 바탕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설악로타리클럽은 속초연탄은행 후원금 전달, 연말 노인 송년잔치 개최, 장애인시설 위문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충남 태안군을 찾아 기름 제거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속초 출신으로 현재 강원대 경영대학원 속초 총동문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노학동에서 영복산소총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은 고성군 토성면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최인숙씨와 1남 2녀. 이우철 기자

# 양양송이 명품브랜드화 유공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박대혁씨 국무총리 표창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계에 근무하고 있는 박대혁씨(37, 사진)가 오랫동안 담당해오고 있는 농촌활력증진사업(신활력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박씨는 지난 11월 2009 농어촌산업 박람회 개최 열린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4만여명의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표창장을 받았다.

현재 농업정책계에서 농촌활력증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05년부터 양양송이명품화 브랜드사업에 매진

하며 양양송이의 명품화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신활력사업과 양양송이를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양양송이의 브랜드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양양송이축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일 대학생 글로벌 캠퍼스 프로그램 운영에 중심적으로 참여, 한·일 젊은이들에게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기여했다.

또 송이가공식품의 다양화와 대중화를 포함해 송이개선사업 등을 통한 생산량 증대 연구, 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양양송이를 테마로 한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박씨는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지

역특색을 살린 테마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양군도 세계적인 양양송이를 주제로 지역브랜드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상은 과분하고 그동안 뒷받침해준 동료들과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

그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양양군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연속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군으로 선정돼 1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현남면 남애2리가 고향인 박씨는 주문진수고를 졸업하고 지난 1995년 세무직 9급으로 공직에 들어와 현남면사무소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현안사업추진단, 자치행정과를 거쳐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계에 근무하고 있다.

배움에 대한 열정도 남다른 그는 현재 경희사이버대 자산관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양양군청 사진 동아리 빛 그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 출/향/인

## 재대구강원도민회 춘계 화합 체육대회

### 박원재 양양군민회장 등 참석...송이동동주 인기

재대구강원도민회가 지난달 24일 대구 제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09년도 제7회 춘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갖고 도민화합을 다졌다.

이날 도민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재 양양군민회회장 등 300여명의 출향인과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정겨운 고향 소

식을 주고받으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강원도민회는 족구와 척사놀이, 소프트볼, 피구, 줄다리기, 단체응원 등 다양한 체육행사로 우의를 다지며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높였다.

특히 양양군민회는 강현면 방축리 김광

희씨가 제조한 양양송이동동주를 가져와 송이의 고장, 양양군을 알렸다.

박원재 회장은 “멀리 타향에서 살고 있는 강원도민들이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대회를 마련해 뜻 깊었다”며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연어가 남대전을 찾듯 고향에



재대구강원도민회 체육대회에서 출향인들이 체육행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 있는 만큼 진심으로 고향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가입안내

[당신의 작은 사랑이 희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 ■ 회비안내

- 개인회원 - 1년 회비 20,000원, 단체회원 100,000원
  - 평생회원 - 개인 200,000원, 단체 1,000,000원
  - 계좌번호안내 - 우체국 202309-01-001404
- 예금주 : 속초사회복지협의회

### ■ 가입문의

- 전화 : 033)633-1363, • 홈페이지 : <http://happysokcho.com>

### ♣기쁨봉사단 가입안내♣

#### ○ 기쁨봉사단 주요활동

속초한가족돕기운동, 양로원  
온천봉사, 노인복지관 급식봉사, 각종행사 무료 음료봉사

- 마음이 따뜻한 기쁨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은 누구나 봉사단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속 초 시 사 회 복 지 협 의 회



사회복지  
법 인

# 고 성 군 사 회 복 지 협 의 회



주제 : “지역 사회복지협의회가 나아갈 길과 선진지역 복지사례”



### 고성군 복지 포럼

- ▲일 시 : 2009년 6월 26초
- ▲장 소 : 고성군청 대회의실
- ▲주 관 :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 ▲초청강사 : 한성수 교수外 5명



단과 입시 전문학원

# 하버드학원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 ■ 원생모집

- △초등부 - 그룹당 3명
- △중등부 - 그룹당 3명(예비중, 중2, 중3)
- △고등부 - 속여고, 속고, 설악고 2명

■ 초등부 : 주4회 수업(90분)

■ 중등부 · 고등부 : 주3회 수업(90분)



## 하버드학원

속초시 교동 교동초등학교 정문앞(백남스튜디오 맞은편)

◆교육상담 : 033. 637-7002, 018-644-9080

# “여성 정치의식 고취 · 여권 신장 앞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속초시지회 창립...초대 지회장에 임옥자씨

(사)한국여성정치연맹 속초시지회 창립 발대식이 지난 8일 마레몬스호텔에서 홍종임 강원연맹회장, 채용생 시장, 김성근 의장,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초대 지회장에는 임옥자(51, 사진, 원안) 삼성디지털프라자(이마트 앞) 대표가 선임됐다.

임옥자 초대 지회장은 “여성이어 세상의 중심에 서라”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는 물론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것은 아직 여러 환경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뜻 있는 여성들이 모여 여성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주정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실천하고자 이렇게 모이게 됐다”고 창립 배경을 밝혔다.

여성정치연맹은 여성의 정치의식을 고취시켜 양성 평등과 여권 신장, 민주사회 구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규모의 여성단체로, 속초시지회는 현재 3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입법 건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건의 △여성 정치 후보자 발굴 및 지원 △여성의 정치 지도력 배양교육 및 지원 △여성 유권자 정치의식 고취 교육 △민주문화 시민운동을 위한 여성 지도자 교육 △정치 도덕성 회복과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사회활동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임 지회장은 “순수한 여성단체와 봉사단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 지회장은 속초시에 10kg 쌀 100포, 속초연탄은행에는 연탄 1,300장을 기탁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속초시지회 창립 발대식에 참가한 내빈들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원안은 임옥자 초대 지회장.

임 지회장은 정선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임 지회장은 태풍 루사 때 이재민 구호를 위해 타월 1천장과 의류 3천장 등을 후원하기도 했으며, 매년 동 주민센터 등에 선풍기, 족욕기 등도 기증하고 있다. 속초검찰 한마음장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우철 기자

## 소야초 종합우승 차지 어머니 생활체육축전

소야초등학교 자모회가 지난 8일 청초호유원지 엑스포C구장에서 열린 제6회 속초시 어머니 생활체육축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속초초, 3위는 청봉초가 차지했다.

소야초는 10인11각 달리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나머지 4개 종목에서도 준우승, 3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둬 종합점수 310점을 기록, 종합우승에 올랐다.

속초초는 단체줄넘기와 줄다리기에서 우승을 차지해 260점을, 청봉초는 가장 많은 점수가 걸려있는 추억의 장애물 릴레이에서 우승하며 250점을 기록했다.

고동초는 입장상을, 청대초는 응원상을 받았다.

한편 소야초 자모회는 우승 상품으로 받은 9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지난 10일 본교에 전달했으며, 다른 자모회들도 상품 일체를 학교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소야초 어머니대표가 홍우길 속초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과 최홍영 조양초 교장으로부터 우승 트로피를 받고 있다.

전 참가팀에 운동용품이 지급됐다.

이우철 기자

## 베트남전 참전용사 위령제 고성군지회, 대대리 기념탑서

제4회 베트남전 참전용사 전사자 및 사망자 위령제가 지난 9일 오전11시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베트남참전 기념탑 경내에서 열렸다.

(사)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고성군지회(지회장 이해원)가 주최한 이날 위령제에는 황종국 고성군수와 황상연 고성군의장, 신명철 강릉보훈지청장 등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전물군경유족회와 전물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특수임무수훈자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위령제는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대리 베트남참전 기념탑은 지난 2004년 11월 고성군이 1억2,000만원을 지원해 건립됐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 속초재향군인회 태극기 달아주기

속초시재향군인회(회장 주영래)는 지난 9일 동명동 일원에서 나라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을 실시했다.

장재환 기자

## 평생학습강좌 수강생 모집

속초평생교육정보관이 2009년 중반기 평생학습강좌 수강생을 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오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는 강좌는 어르신(55세 이상)정보화교육 초급반과 중급반, 어린이(초등생)한자교실 등 3개 강좌로, 정원은 각 20명씩이다.

신청은 정보관 2층 평생학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수강생은 재료 및 교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등록인원이 정원에 50% 미달될 경우 폐강된다. <문의 : 635-9024> 이우철 기자

#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

## 9년 연속 취업률 최우수대학

- ▶ 2001 ~ 2009년 취업률 95% 이상 달성! (교육과학기술부)
- ▶ 2007년 취업률통계조사 신뢰도 검증 우수모범대학! (한국교육개발원)
- ▶ 2008년 대학정보공시제 정규직취업률 1위 대학! (동아일보)

## 2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 ▶ 2008 ~ 2009년 정부 포물러(지표) 평가
- ▶ 취업, 충원, 국제화, 교원 확보, 교육비 투자, 장학금 지급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관광통역학전공 호텔경영학전공 외식사업경영학전공	사회복지경영학부 사회복지경영학전공 경영학전공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경호비사학전공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통신공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건축디자인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	사범계열 유아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한국어교원과	보건계열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학과제 디지털메이커학과 해양심층수학과 스포츠마케팅학과
--	--------------------------------	------------------------------	-------------------------------------	---	------------------------------------	-------------------------	--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

■ 주소 : (217-600) 강원도 속초시 속초우체국 사서함 제57호

■ 전화 : 033-631-2000

■ 입시상담 : 033-6390-114,119

■ 팩스 : 033-6390-117

[www.k1.ac.kr](http://www.k1.ac.kr)

6기 자원봉사대학 개강



속초시자원봉사센터 제6기 자원봉사대학이 개강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사회복지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강식을 열고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2명이 참가하며 교육은 오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린다.

이우철 기자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마련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일일차집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26일 교동 맥거리촌 내 길목호프에서 저소득 청소년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한 '2009 작은 사랑 큰 행복 일일카페'를 연다.

일일카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 운영되며 식사와 차, 주류 등을 판매한다. 티켓은 1만원이며, 복지관에서 사전 구입하거나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 가구에 지원된다. <문의 : 635-0758>

이우철 기자

# 고성해양심층수축제 8월13일 개막

4일간 개최... "고성을 해양심층수 메카로"

제4회 천년의 신비 고성해양심층수축제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고성 송지호와 고성군 전역에서 열린다.

고성군은 지난 10일 경동대 교수세미나실에서 고성해양심층수축제 운영위원회회의를 열고, 축제일정 및 축제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매년 축제가 피서철인 7월31일~8월3일경에 열려 지역경기 효과가 크지 못하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막바지 피서객들을 잡기 위해 8월 1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축제를 열기로 했다.

또 지난 3년간 정부의 신활력사업 지원비로 개최됐으나, 올해부터 군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송지호 일대 체험 축제장은 물론 고성군 전체를 축제장으로 만들어 해양심층수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기로 했다.

특히, 고성 특산물업체와 음식점 등의 참여를 유도해 해양심층수 활용법에 관



고성군이 지난 10일 경동대 교수세미나실에서 고성해양심층수축제 운영위원회회의를 열고 있다.

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특산물이나 음식에 대해 해양심층수 사용 품질인증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이날 축제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윤희 경동대 산학협력단장은 "체험객들이 단순 체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내를 돌며 고성 8경과 8미 등 관광지를 둘러보고 음식도 맛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역경기 부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 애기미 꿈나무들 대청봉 올라

아야진초교 4·5·6학년생 53명 참가

고성 애기미(아야진의 옛명칭) 꿈나무들이 대청봉에 올라 인내력과 자신감 등 호연지기를 길렀다.

아야진초교(교장 남병목) 4·5·6학년생 53명은 지난 9일 새벽 오색에 집결해 아침 7시 대청봉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4월부터 매일 아침 학교 운동장 6~8바퀴씩 달리는 훈련을 해 온 학생들이지만, 대청봉 산행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다.

흐린 날씨에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짙은 안개와 비로 추위와 싸워야 했고,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고 서로 도와주며 정상을 향한 지친 발걸음을 옮겼다.

결국, 5시간만에 정상에 오른 학생들은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맛봤다.

신나리양(6년)은 "힘들게 산에 올라 정상에 선 느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

다고 했다.

오색에서 설악산 공원까지 총 14.9km의 산행을 11시간여만에 마치고, 저녁 6시경 학교에 도착한 학생들은 학부모들의 환호와 격려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산행을 완주한 53명의 학생들에게 일일이 사탕목걸이와 장미꽃 한송이씩을 나눠주며 씩씩한 모습으로 무사히 돌아온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다.

박대성 교사는 "이번 산행을 통해 애기



고성 아야진초교 학생들이 지난 9일 대청봉 정상에 올라 호연지기를 길렀다.

미 꿈나무들이 미래를 열어갈 값진 에너지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횡성한우 전문점

### 한우의 맛은 자연을 닮습니다

# 횡성한우 참숯 불구이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속에서 키워진 횡성한우 특유의 부드러운 육질의 맛을 최고의 서비스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드셔보세요

메뉴

◆한우등심 ◆한우모듬 ◆한우육회  
◆만두국 ◆소고기찌개

단체예약 · 연회석완비 · 넓은주차장

속초시 청학동 김안경원 골목 內

T. 033. 638-0599 / 010-2273-0599

## 건봉사서 19일 참전용사 위령제 울곡부대,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육군 울곡부대(부대장 이양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울곡부대는 '장병 호국의지 고양 및 참전용사 등 보훈가족 위로'를 테마로 6.25 상기 훈련과 참전용사 위령제, 호국영령 추모기원 종교행사, 전사적지 평화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이자 약 1,300위의 호국영령 위패가 봉안돼 있는 건봉사에서 참전용사 위령제를 연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전사적지 평화활동은 이달말까지 진행되며, 고성과 속초지역의 16개 전적비 및 충혼탑을 찾아 장병들이 훼손부분 보수와 주변 환경정리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25일에는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지역 기관장, 6.25 참전용사, 지역주민, 장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9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 주위에는 군 장비 전시와 함께 한방, 내과, 치과로 구성된 22사단 의무 근무대 의료진들이 국가유공자들을 진료할 예정이다.

울곡부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 속에서 이번 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의미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장병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 인터넷 실명제 · 사형제도 놓고 공방

## 속초양양교육청, 학생 대토론회 개최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사형제도 존폐를 두고 청소년들의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 최현규)은 지난 11일 오후 교육청 청담관에서 중·고생과 교사, 학부모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속초양양지구 강원학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속초여고 강지혜양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10명의 중·고생이 발제자로 참석, '인권과 관련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사형제도 존폐'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 찬성 측은 최근 발생한 연예인 자살 사건 등을 예로 들고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인터넷의 맹점이 불러온 것이라며, 실명공개 등의 규제를 좀 더 강화해 사이버 범죄와 악성리플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학생들은 실명제 실시는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건전한 비판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



속초양양교육청에서 열린 강원학생 대토론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열띤 공방을 펼치고 있다.

려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 전반에 걸쳐 시행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도용 등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는 우선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놓고서는, 유엔이 1988년과 1996년에 실시한 범죄율과 사형제도의 연관성 조사를 예로 들며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사형은 교화나 일시적 격리로 해결할 수 없는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형벌수단으로 강력한 범죄억제력을 지니고 있고 이를 헌법에서도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우철 기자

함께사는 생명-청초호의 풀과 나무 <11>

### 메꽃



청초호조류생태공원에 설치된 탐조대 근처에 가면 나팔꽃과 비슷하게 생긴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생김새가 나팔꽃과 비슷하지만 꽃이 연분홍색인데다가 잎이 길쭉해서 구별이 됩니다.

주로 땅속줄기로 번식을 하고 햇제를 좋아하는 메꽃은 시계방향과 반대로 감아올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좋은 날, 청초호에서 새색시같이 수줍게 피어있는 메꽃을 만나보세요.

(자료제공: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 영랑작은도서관 야간 개방

직장인과 학생 등 일과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영랑작은도서관이 밤 10시까지 개방된다.

속초시는 2009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영랑작은도서관(옛 영랑동사무소)을 기존 오후 6시보다 4시간 늘린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영랑작은도서관은 2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한 자료실과 세미나실, 정보검색대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도내 13개 공공도서관이 야간에 운영되고 있으며, 속초에는 영랑작은도서관, 속초평생교육정보관, 속초도서관 등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우철 기자

##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본격 활동

### 속초시 1차위원회 열어...14개 기관 · 단체 참여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연대가 출범했다.

속초시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등 속초지역 아동·여성폭력 관련 14개 기관·단체 대표들은 지난 12일 오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속초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위원장 장철규) 1차 위원회를 열고 본

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보호 관련 기관·단체들이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아동·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

여와 올해 지역연대 운영계획 심의, 지역연대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공동협력사업안을 논의했다.

**속초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참가 기관·단체** △속초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춘천지방변호사 속초지회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사)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속초경찰서 △속초양양교육청 △속초시보육시설연합회 △속초성폭력상담소 △속초가정폭력상담소

이우철 기자

감각있는 디자이너들과 발빠른 시공팀이 항상 고객과 함께 합니다~!

# 부지런한 광고

“ 새벽 첫 이슬보다 발빠른 광고를 만들겠습니다! ”

**이정종합광고**  
EJad Ejung total advertising

● 저렴한 가격으로 귀사의 어이템을 광고에 드립니다.  
● 항상 고객의 입장에 서서 생각합니다!

TEL 631-9831~2  
FAX 631-9833 공평 636-8966

**태광디자인**  
Taegwang DESIGN POWER ON

● 최고의 디자인~최상의 효과를 누리십시오!  
● 고객의 광고에 날개를 달어드립니다!

TEL 632-1100 (4F)

# 露

속초시 조양동 1292-15 / 진덕맨션 후문 맞은편 위치

이반칼럼



이반  
극작가, 前 숭실대 교수

## 느림의 미학

홍콩관광호텔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여 종업원이 스위스 호텔 식당에 가서 연수하다 생긴 일이다. 홍콩 여성은 스위스 호텔에 가서도 홍콩처럼 열심히 일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음식을 손님에게 빠르게 날랐다. 홍콩 여종업원은 자신의 날렵함과 한꺼번에 많은 접시를 나르는 기술에 스위스 측에서 감탄하며 좋아할 줄 알았다. 스위스 식당에서 식사하던 고객들이 식당 지배인을 찾았다. 그들은 “우리는 조용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싶는데, 저 종업원이 급히 다니고 째까지 흘리고 다닌다. 남이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편히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그 종업원은 다음날부터 식당 구석에 앉아 스위스 식당의 시간의 흐름을 익히는 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나라다. 관광 수입으로 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서두름 속에서 살아 왔다. 빨리 빨리 일하고 먹고 잔 덕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한국의 서두름은 세계가 알아 주고, 그 서두름을 세계인들은 역동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일본 TV 프

로그래프의 속도는 우리 프로그램보다 느리다.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들은 공장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다. 관광을 위해 오거나 쉬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속도는 어떤가? 만사를 서두르지 않는가? 설악권에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의 차의 속도는 빠르고 거친 편이다. 앞 차가 느리게 가면 여지없이 경적을 울린다. 슬로우 시티나 슬로우 에리어의 속도를 주창할 생각은 없다. 다만 관광지인 만큼 여유 있고, 한가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설악권의 네 지역 인제, 양양, 속초, 고성은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하나로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서적 통일과 결속은 공동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양양의 동해안 38선과 인제의 중부 38선을 기점으로 또는 인접 도시와 경계선부터 설악권에 진입하는 모든 자동차와 주민들의 차가 법이 정하는 규정 속도 보다 한 시간에 십 킬로씩만 저속으로 달린다면 설악권은 ‘느려서 여유 있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 동시에 어

린이와 함께 관광에 나서도 ‘안전한 지역’이라는 브랜드를 획득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서두르는 문화 속에서는 들쭉날쭉의 아름다움도, 장미꽃의 섬세한 미색도 보이지 않는다. 상쾌한 바람 냄새나 갈대의 춤은 더욱 감각할 수 없다.

설악권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었다. 국군이 수복 지구를 탈환한 후 설악권은 아직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때였다. 수복 지구에서 정부가 있는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고 길었다. 1951년도에 속초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2박 3일은 걸렸다. 첫째날은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강릉행 버스를 탄다. 기사문 38 휴게소에서 검문을 받는데, 그 검문이라는 것이 알카에다의 테러 이후 파키스탄 출신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 보다 더 철저하고 심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다음 날, 강릉에서 원주행 버스를 탄다. 대관령 아흔 아홉 고개는 길고 지루했다. 겨울, 눈이라도 오면 버스는 버스대로, 사람은 제각각 차에서 내려 걸어서 대관령을 넘어야 했다. 대화에서 장국밥 한 그릇 먹고 버스를 타고 졸면, 저녁이 된다. 어둑해서 이른 곳이 원주다. 원주에서 서울

청량리는 셋째날에 도착한다. 그렇게 지루하고 늦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해도 사람들은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다. 1970년대는 서울 마장동에서 속초 중앙동 금강운수 터미널까지 열 두 시간 걸렸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는 지루한 길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지루함을 인내하고 행복해 했다. 서울은 이제 두 시간 오십분 만에 오 갈 수 있는 가까운 공간이 되었다. 수도권이 가깝고 빨리 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더 편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50년대의 느림과 70년대의 꾸물거림이 이 천 년대의 빠름에 비해 좋다고 예찬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속도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치일 뿐이지 절대 가치는 아니다.

서울과 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설악 지역까지 두 시간대에 오갈 수 있다. 환영할 일만 아니다. 급히 만난 연인은 미련 없이 헤어질 수도 있다. 빨리 온 만큼 빨리 떠날 수도 있다.

느린 도시, 한가한 지역, 가슴 트이게 하는 바닷가와 계곡의 매력은 빠름과 서두름의 경쟁에서 벗어나 있는데서 부터 비롯된다.

기고

## 청소년 흡연 이대로 안 된다



이대길  
속초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경에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천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한국갤럽의 흡연실태조사보고서에서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0.9%로, 2000년도의 67.6% 보다 26.7% 줄었으나, 오히려 청소년 흡연율은 10.8% 증가하는 등 남녀 청소년들의 흡연이 10여년 간 급속히 증가했다. 이 놀라운 통계와 한국이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라는 보도를 보며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흡연을 묵인하고 방관한 결과이다. 필자는 담배를 피우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은 인체의 세포나 조직 장기 등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담배가 지닌 독성성분과 접촉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

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속한 성인이 되어서 담배를 피우도록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정에 가면 담배연기를 쉽게 볼 수 있다. “교정에서 겁 없이 흡연하는 학생을 단속 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상습적으로 흡연을 해 왔기 때문에 단속을 한들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할 정도면 심각하지 않겠는가.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인 ‘2007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 중·고등학생 가운데 초등학교 4~6학년 때 흡연을 경험한 경우가 29%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 때 담배를 피웠다는 응답도 12.5%로 나타났다. 특히 14세 미만 청소년 흡연인구는 11만 명에 이르고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도 점점 빨라져 5년마다 1세씩 낮아지고 있다는 충격적 통계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청소년의 흡연은 뇌를 망치고 뼈를 파괴하고 혈관을 괴롭히며 피부를 태운다. 흡

연은 40여 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독성물질이 청소년의 성장을 황폐화 시킨다.

우리의 청소년 흡연은 삼삼오오 모여 후미진 골목길, 놀이터, 빌딩옥상, 공중화장실, 빈집, 신축 중인 아파트 건물, 또는 지하실계단에서 3~4명씩 쭈그려 앉아서 하는 등 대중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이뤄져 제2의 청소년비행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에는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어설픈 훈계 하다 폭행을 당한 어른들이 빈번하다. 그래서 흡연하는 청소년을 보면,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간다면 부끄러워 하는 게 요즘 어른들의 고충이다. 그 만큼 이기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남편에게 이를 알리면 충격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편은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교를 방

문해 달라는 연락 받고야 비로소 착하게만 자라줄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비행 학생으로 분류된 사실을 알고 부끄러움과 모욕감, 역장이 무너지는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 부모인가. 사회교육 환경인가.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을 다루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보면, 담배 세수가 2조4,479억원 인데 비해 흡연으로 인한 인적유해성 피해는 약 네 배에 이르는 9조원이나 된다.

공교육은 참으로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처방이 있을 때 참다운 공교육의 미래가 보인다.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며 귀중한 국가재원이다. 청소년의 금연은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시급히 전개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는이야기

## 모니터와 석가



최명길  
시인

새 모니터를 들여놓았다. 쓰던 모니터가 부라운관 형이라 투박하고 어두워서였다. 새 모니터는 LCD형이다. 두께가 부라운관형보다 30배는 얇은 것 같다. 새 모니터는 22인치 크기의 장방형이다. 해상도가 1920×1050으로 부라운관형보다 3.4배나 높다. 화면이 선명해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80년대 끝무렵이었고, 인터넷을 처음 접하기는 1998년 여름이었다. 인터넷 공간은 뜻밖의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다. 세상이 손끝 하나에 놀아난다 할까. 손가락을 까딱하는 순간 천지가 요동치는 것 같았다. 그건 가상적인 공간이었지만 현실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정작 자그만 내 방안에 컴퓨터가 온 것은 2000년 3월이었다. 팬터미엄에 평면 모니터로 당시로는 첨단 제품이었다. 그러니까 그 모니터에 정을 붙인 지 10년이 됐다. 모니터만 두고 보았을 때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거듭한 것이다. 해상도가 3.4배나 높아졌고 두께가 30배 얇아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어떤 쪽은 이전투구로 뒤엎겨 좌나 우나며 서로 으르렁거릴 때 어떤 쪽은 이렇듯 환해졌더니 놀라움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하다.

새 모니터는 며칠 전에 왔다. 오후 내내 천둥과 벼락이 치고 소나기가 퍼붓던 날이었다. 설치 기사가 돌아가고 난 다음 나는 환한 이 모니터로 처음 무얼 할까 하다가 BBC에서 방영한 '붓다의 일생(The Life Of The Buddha)'을 띄웠다. 화면이 깨끗했다.

'붓다의 일생'은 신과 인간에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신을 모신 종교와 인간이 신의 경지에까지 도달한 종교의 차이를 풀어내었다. 특히 아쇼카왕이 세운 석주의 명문을 판독하고 석가가 설화상의 인물이 아닌 생존했던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경탄을 보냈다. 석가도 어머니 몸으로 태어났고 고뇌했으며 마침내 죽음에 이른 한 인간이었다. 다만 고뇌를 명상으로 풀려했고, 인간정신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생사가 여말한 경계에까지 나갔다. 이는 곧 사람도 경지에 이르면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 것이었다. '사람이 부처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 서구 지성들이 붓다의 가르침에 열광하고 따르는 이들이 4억 명이나 된다고 한 시간 남짓한 화면은 끝났다.

인터넷망은 화염계의 인드라망과 흡사하다. '대방광불 화엄경'의 도솔천계는 갖가지 빛의 그물로 연결된 장엄한 인드라망세계다. 이 세상도 알고 보면 중중무진의 그물로 구성된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의 세계다. 가상공간인 인터넷망은 전선 속으로 흐르는 장엄한 빛의 그물이다. 이 그물에 꽃망울처럼 맺힌 영상은 손끝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 삼라만상이 손끝에 깃들고 손끝에서 피어난다. 이 미묘한 공간에 나는 조출한 오두막 한 채를 마련하기도 했다. 2007년 4월 6일이니, 두 돌을 넘어섰다. 식구가 많은 편은 아니나 시냇물과 안부를 나누며 2500년 전 저 세상이 이 세상임을 절감한다.

부라운관 모니터로 나는 원고를 입력했었다. 만년필로 초고를 끝내면 자판기를 두드리고 저장했다. 시의 경우는 그렇게 해 왔다. 40일간 백두대간 종주를 하며 봉우리마다 생명을 던져 얻은 시 '산시 백두대간' 143편도 그렇게 해 저장돼 있다. 물론 모니터에 저장한 것은 아니지만 모니터를 통해 무의식의 심층계인 하드 디스크에 내 영혼의 산물인 그것들이 내려가 잠긴 것이었다.

투박했으나 정들었던 모니터를 떠나보내며 나는 서운했다. 10년 지기를 버리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옮기기도 쉽지 않은 무게라 그냥 보냈다. 아직 쓸 만한데 곧장 파쇄될 거라 했다.

생하면 멀하고 멀하면 생하느니.

기고

## 승고한 삶의 지혜 4-H이념



최종남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내가 태어난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는 전형적인 농촌이지만 돌이 지나기도 전에 아버지 직장을 따라 속초로 이사를 가게 되어 결혼하기까지 계속 속초에서 자랐다.

속초는 반농반어가 공존하는 도시로, 농촌의 중간형태를 간직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적 내가 살던 속초에도 농촌 마을 입구에 클로버모형의 지·덕·노·체 또는 4-H라는 글자가 새겨진 표지석들을 보았던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남아있다.

그때는 그 뜻도 몰랐고 그냥 그렇게 지나쳤다.

그리고 몇십년 후 양양군농업기술센터로 발령을 받은 지 어느덧 4년이 지났고 4-H업무를 보게 된 것도 2년여가 되어가고 있다.

처음 4-H업무를 대면했을 때의 업무의 생소함과 막막함이 떠오른다.

4-H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도 모른 채 담당하게 되었고, 무심하게 지나쳐 버렸던 그 4-H표지석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

오기 시작했다.

처음 대하는 업무처리와 추진방법을 익히고 4-H라는 단어속에 숨겨진 고귀하고 놀라운 뜻을 마음속에 되새겨 보고 그 진정한 의미를 미처 헤아릴 여유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교육행사나 회의진행을 하면서 그 때마다 4-H기본정신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4-H이념이야말로 그야말로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승고한 이념의 결정체라고 말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형식이나 방법들도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은 4-H기본이념이 아닐까 한다.

사회공동체 속에서 지·덕·노·체에 담겨진 이념대로만 실천하고 생활한다면 누구든지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속에서 우

## 영랑동 해안에서 교훈을

속초시 영랑동 해안가가 다시 바닷모래로 뒤덮이면 서 백사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길고 넓은 백사장이 아름다웠던 영랑동 해안가는 언제부턴가 해안침식이 가속화되면서 바닷모래가 자취를 감추고 백사장 없는 해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바닷물이 도로 턱 밑까지 차오르고, 파도를 막기 위해 해안가에 삼밭이(TTP)를 쌓아 놓아 자연경관마저 영망으로 만들었다. 당연히 해수욕장 기능도 상실해 갔다.

해안침식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도 컸다. 여러 차례 너울성 파도가 도로를 덮쳤고, 과제벽과 인도가 내려앉는 피해가 발생했다. 파도가 민가까지 위협해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속초시는 해안침식을 막고 백사장을 복구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파도 위력을 약화시키고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헤드랜드와 잠제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잠제 1기는 이달말 준공될 예정이며, 시는 2011년까지 영랑동 해안가에 모두 3기의 잠제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해안침식 방지사업으로 영랑동 해안가 백사장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잠제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해안가 백사장의 모습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영랑동 해안가의 사례를 보면서 무분별한 해안가 개발이 불러오는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상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해안침식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방파제 조성, 해류의 변화, 토사 공급 감소, 해안가 건축물 조성 등을 꼽고 있다. 영랑동의 해안침식도 방파제 조성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절대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서둘러 진행한 영랑동 해안침식방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우리나라 해안침식방지사업의 의미 있는 사례로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설악신문 1990년 5월 28일 창간 / 1992. 6. 12 제3종 우편물(가)인가

- 창간이념 : 지역사회의 밑물, 지방문화의 활성화  
생활정보의 전달, 주민을 위한 신문
  - 발행·편집인 : 박명중 · 전무이사 : 고영진 · 편집국장 : 장재환
  - 인쇄처 : 강원도민일보사
  - 편집 광고국 : 033. 636-2222, 636-2227
  - 등록번호 : 1990. 3. 16 강원 다 01008
  - 구독료 : 월 3,500원 / 1년 40,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리 양양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농4-H 회원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점차 학교4-H회의 운영도 일선학교의 지도교사들에게 애로사항이 따르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건전한 놀이문화정착과 전통문화계승에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청성4-H품물패는 그동안 지역문화축제에 공연봉사를 하고 있고, 다수의 품물 겨루기대회 등에서도 입상 경력을 자랑하여 그야말로 4-H기본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작고 미미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곳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 불을 꺼뜨리지만 않는다면 다시 타오르는 희망의 빛이 되리라 확신한다.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행동들이 내 두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사회에 공헌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 또한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올해 강원도 4-H지도교사협의회 부회장을 맡으신 양양여고의 김영미 지도교사와 양양고의 김봉환 지도교사를 비롯하여 학교4-H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양양군 4-H지도교사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양양군4-H회 운영발전에 남다른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남호 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회원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